

# 충청남도 기후위기 당사자 사회적대화 결과보고서

2024. 6.



# 제 출 문

충청남도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평가」 연구의  
기후위기 당사자 사회적대화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에서 위탁사업으로 진행)

2024. 6.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황 성 렬

충남연구원장

유 동 훈



# < 목 차 >

I. 사회적대화 개요 .....	1
① 목적 .....	1
② 워크숍 일정 .....	1
II. 사회적대화 주요 내용 .....	2
① 노동자, 어민 그룹 .....	2
② 이주민, 장애인 그룹 .....	6
③ 농민 그룹 .....	10
부록. 기후위기 당사자 인터뷰 .....	14



# I. 사회적대화 개요

## ① 목적

- 기후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당사자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기후위기 관련 계획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후위기 당사자들을 고려하는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함
- 기후위기 당사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수렴

## ② 워크숍 일정

- 워크숍은 충남도 내 15개 시군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함

구분	일시	장소	지역 협력	부문
보령, 서산 당진, 태안	3.11.(월) 14:00	서산태안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협동조합	노동자, 어민
천안, 아산	3.14.(목) 10:00	천안시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단체,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 장애인
홍성, 예산	3.15.(금) 14:00	내포혁신플랫폼	환경운동연합, 농민단체, 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농민

## II. 사회적대화 주요 내용

### ① 노동자, 어민 그룹

#### 1) 개요

- 대상시군 : 보령, 서산, 당진, 태안
- 일 시 : 2024. 3. 11.(월) 14:00~16:00
- 장 소 :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 2) 주요 주제

- 해양 생태계 변화 원인과 조사 방법
- 발전소 주변 환경과 노동자 건강 문제
- 지역 경제와 환경 보호를 위한 대안과 정책 제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
- 범시민사회 연대를 통한 정책 변화와 법제화

#### 3) 대응방안

- 해양보호구역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어족 자원 생산량 감소 원인 파악
- 발전소 폐쇄 시 지역 소멸 문제 해결 방안 모색
- 노동자와 어민이 발전소 운영 및 폐쇄에 따른 피해저감 방법 모색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교육 계획 수립
- 범시민사회 연대 구성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개발
- 발전소 폐쇄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 마련
- 노동자 행진 준비 및 기자회견 준비

#### 4) 노동분야 주요 의견

- 석유화학 단지의 위험성
  - 경제적인 상황은 좋으나 건강 등에 대해서는 매우 악조건임
  - 개선을 위하여 많은 얘기를 하였으나 개선이 안됨
-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피해
  - 전자장비 등을 통해서 온도상승의 정도를 측정하고 DB화 함
  - 온배수 관리방법을 설정하여야 함

- ※ 최근 강원도 방면 해수면 온도가 19도 정도 상승하였는데, 이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가동된 후 온배수가 바다로 유입되었기 때문
  - 보령시 주교면은 바지락 주요 생산지이나 석탄화력발전소 배후마을로 과거 2010년 쯤 대량 발생에 따른 바지락 생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환경피해의 우려가 높음
  - 2010년 주교면 인근까지 고추를 먹지 말라는 판정이 내려진 적 있음
  - 발전소 등에 의한 다양한 환경피해로 바지락 생산에 어려움 발생
- 해저터널 건설에 따른 양식장 피해
  - 원산도 해저터널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다량의 차가운 해저 지하수가 인근 가두리양식장으로 바로 유입되어 빈번하게 양식 돌돔이 집단 폐사하는 피해 발생
  - 또한 해저터널 공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바지락 채취량이 급감
- ※ 시공사 측에서 바지락 종패 10톤을 양식장에 방류하였으나 폐사하거나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상품가치가 없었음
  - 행정적으로 바다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책이 미비
- 태안군 환경관리사업소
  -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인근에 태안군 환경관리사업소가 위치함
  -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양식장이 훼손되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고 점차 바지락을 켈 수 있는 지역이 감소하고 있음
- ※ 자금을 투입한 만큼 생산에 성공을 못하고 있음
-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미지정지역
  -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의 인근은 어업 생산량 확대 등이 어려운 조건임
  - 해수가 유통되는 부분이 막혀있어 주변 해류의 흐름이 달라졌으며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 됨
  - 가로림만은 주변에 공단이 위치하고 호리병모양의 반폐쇄성 내만으로 20만급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천혜의 항만임(개발수요가 높음)
- 발전소 인근 주민의 영향
  - 석탄에서 유발되는 검은 먼지가 계속적으로 유입되어 밖에다 빨래를 너는 것이 불가능
  - 단국대에서 주도하는 건강관련 설문지를 보면 석탄화력발전소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 맞는 지 의문이 듦
- ※ 학부모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설문지 질문이 있음
  - 석탄화력발전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밖에 없음
  - 건강관리카드를 발행해서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됨

- 발전소 폐쇄 대응방안
  - 발전소 폐쇄 시 지역소멸이라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므로 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하여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
  - ※ 태양광과 해상풍력 설치
  - 발전소 인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피해자가 생성되므로 폐쇄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방법을 찾아내는 위원회 등을 조성
  - 관련법을 제정하더라도 당사자가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을 수 밖에 없으므로 당사자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발전소 노동자들의 지역 사랑
  - 발전소 노동자들은 지역주민을 등한시하지 않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
  - 발전소 폐쇄 시 지역이 붕괴되지 않도록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고민들을 하고 있음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책
  - 환경부에서 벌금을 물릴 경우 회사에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
  - 행정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함(대책마련)
-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 모든 보령시내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수증기를 볼 수 있음
  - 노동자와 어민이 발전소 운영 및 폐쇄에 따른 피해저감 방법 모색
- 노동자들의 폭염 대응
  - 노동자 그룹이 기후위기에 공통적으로 가지는 피해들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도출
  - 폭염발생시 작업여건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대한 기준 설정
  - ※ 휴식을 취할지 일을 할지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
  - 폭염시 노동금지에 대한 강제조항이 있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 노동현장의 노동 인권
  - 지역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권고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함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 이주노동자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배제하여 지급을 안하는 상황이 있었음
  - 외국인의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있음
  - ※ 외국인이라고 재난이 피해 가는 건 아닌데 정부의 혜택을 받으면 안된다고 인식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 기후변화 관련 주민, 어민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필요
  - 언론 등에서 기후변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정리가 미약하여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 기후위기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해 교육 또는 홍보해야 대처가 가능함
- 충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시민 사회연대 구성
  - 도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슈가 생성되고 이는 노동자 및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슈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음
  - 기후위기 관련 범시민사회 연대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참여자(본 세미나 참석자 등)를 중심으로 부문별 특화자 선정
  - 발전소 폐쇄 관련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부문별 대표(적극적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범시민연대를 조성할 경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이슈생성이 가능할 것임
- 기타
  -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 등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지역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
  - 기후변화 관련 7~8개 분야는 단편적이고, 문서에 있는 지식에 특화되어 있음
  - 충남연구원은 시민사회와 함께 정책을 변화시키고 법제화 등에 대해 건의할 필요가 있음

## 5) 어업분야 주요 의견

- 수온 상승시 해양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였는데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음
  - 모니터링 조사는 기간, 인원, 자본 등이 많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음
-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나 단기연구로는 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해양수산부와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다양한 원인을 조사해 봐야함
- 수온변화에 맞춰 어업방법을 변경할 경우 경비가 많이 들고 시스템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음

## ② 이주민, 장애인 그룹

### 1) 개요

- 대상시군 : 천안, 아산
- 일 시 : 2024. 3. 14.(목) 10:00~12:00
- 장 소 : 천안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 2) 주요 주제

- 이주민 인권과 제도적 지원
- 인식개선과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 다문화 자녀와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 3) 대응방안

-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취약 영역 파악
- 재난대피 매뉴얼과 지원 매뉴얼 제작
- 인식개선 교육 및 활동 캠페인 진행
- 이주민 관련 정보 수집 및 공유 체계 구축

### 4) 주요 의견

- 기후변화 교육의 문제점
  - 기후변화에 대한 폭넓은 교육이 미흡하여 교육내용에 따라 새롭게 인식하는 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미약함. 즉 남성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미약함
  - 기후변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함
- 이주 여성노동자의 인권
  - 이주여성에는 이주 여성노동자도 있음
  -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고 상담소에서도 도움이 미흡함
- 이주민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 이주민 중에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주민이 있는 반면 등록·미등록 노동자 등 제도권 바깥에 있어 지원없이 체류중인 이주민이 있음
  - 제도권 및 민간의 지원정도에 따라 사각지대 중 더 심각한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이 있음

- 각 기관 및 민간단체의 시점에 따라 복지정책이 시행되어 이주민 성격별로 차별이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재난발생시 이주민의 인권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인권위 등 정부의 관심이 더욱 필요함
  - 이주민의 국적에 따라 지원여부가 가려질 때도 있는 등 다양한 차별에 대한 수정이 필요
  - 사람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 이주민 특성에 따라 상이할 경우가 있었음
- 이주노동자의 고충
  - 추운겨울과 덥고습한 여름 등 익숙하지 않은 날씨에 적응하기 어려움
  - 이주노동자의 경우 건설, 농업 등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태풍, 폭염, 코로나 19, 등의 재해에 관심이 높음
  - 시골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코로나 19가 유행할 때 백신접종과 치료가 어려움
- 작업의 어려움
  - 작업중지권이 있으나 강제하지 않아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산재가 발생하여도 각종 도움이 없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없음
- 코로나 19 유행기 불평등한 대우
  - 그나마 이주노동자의 경우 노동자 본인의 근무이탈과 주변 노동자 전파위험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를 필수로 지급받았으나, 회사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경우 후순위로 밀려 지원이 미루어지는 등 불평등한 대우가 많음
  - 기후변화 등에 따라 더욱 빈번하고 다양한 재난이 발생될 것이며, 이에 따른 대처가 미흡할 경우 이주민과 같이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
  - ※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어 재난문자가 와도 이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기 어려움
  - 코로나 19 상황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 중의 하나는 진단검사 강제 등의 행정명령 임
  -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코로나 19 강제 진단검사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함
- 참고 : 일본의 재난지원금
  - 일본의 재난지원금은 지역에 생활하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10만 엔을 지급함
  - 세대 구성 세대로 지원금이 지급됨
- QR 코드의 목적
  - 지원대상자의 신원확인용인지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인지 정확한 QR코드의 정확한 사용목적은 모르겠음
  - 지원을 어떻게 요구하는가? 어떻게 지원을 받는가? 등을 고려하여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록 하여야 함

○ 충남의 장애인

- 충남에서 이주민과 장애인의 공통점은 소통이 어렵고 통계가 유사하다는 것임
- 즉, 장애인 인구비율과 이주민 비율이 유사하게 잡힘

○ 장애인 유형별 소외

- 장애 당사자라 하더라도 장애 유형별로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다름
- 유형별로 장애인 구분시 유형별로 소외되는게 있음
- 장애인을 고려한 재난대피 매뉴얼과 지원 매뉴얼이 필요함

○ 지방정부의 이주민 정책

- 지방정부가 이주민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중앙정부와 자료를 공유하며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음
- 지방정부의 경우 이주민에 대한 권한 및 행정력에 한계가 있음
- 한계가 존재하고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 상의해야할 대상들이 있음

○ 난민 인정률 2~3%

- 신원이 확인된 (인정·비인정)난민의 경우 사회의 일자리 부족 해소를 겸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주었으면 좋겠음
- 난민 인정은 법무부가 주관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난민에 인정될 경우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하게 취급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인정률이 2~3%로 매우 낮음
- 전쟁으로 인해 한국으로 왔으나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자의 신분으로 취업 등의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많음
- ※ 취업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전 근로계약 체결과 사업자등록증 제출 등 사업주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음
- 법무부에서 유학생이 일 할 수 있는 폭을 넓힐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음
- ※ 법무부에서는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생을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 하고자 함

○ 난민 수용에 대한 입장

- 난민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여도 이를 수용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라고 생각함
-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 학교 생활 등 너무 불편한 것이 많음

○ 다문화 자녀의 차별

- 사회에서 다문화 자녀를 자꾸 구분 짓고 차별하고 있어 학교에 다문화 자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건의함
- 다문화 자녀를 대한민국의 아이로 인식하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나 아이들 엄마에 대한 고려는 없음

○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민 가정 아이

-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함
- 이주민 자녀, 다문화 자녀 등 모두가 한국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식이 확대되면 좋겠다고 생각함

○ 차별의 폭력성

- 차별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음
- 인식개선교육이나 활동캠페인 등을 계획할 때 어느지점에 맞춰서 교육이나 캠페인을 진행할지 고민이 많음

○ 이주민 지원단체의 역할

- 지역마다 이주민 지원 단체가 필요함
- 중간지원 조직들이나 지원하는 단체들의 역할도 필요함

### ③ 농민 그룹

#### 1) 개요

- 대상시군 : 홍성, 예산
- 일 시 : 2024. 3. 15.(금) 14:00~16:00
- 장 소 : 충남내포혁신플랫폼 1층 M1회의실

#### 2) 주요 주제

- 농업과 환경의 관계와 중요성
- 농민들의 신뢰와 정부의 대응 방안
- 농업분야의 경제성과 취약성
- 농업분야의 공익적 기능과 자부심
- 농업분야의 현황파악과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

#### 3) 대응방안

- 농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보급
- 농업분야에서의 환경 부하 감소 방안 모색

#### 4) 주요 의견

- 홍성에서의 느끼는 기후변화
  - 농가끼리 대표성을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 향후 논의를 별도로 이어갈 수 있을거라 생각함
  - 최근들어 기후위기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가뭄, 폭염, 폭우가 제일 치명적이라고 생각함
- 친환경 농업의 확대
  - 유럽의 경우 2030년까지 전국의 30% 이상을 유기농업화 하겠다고 국가목표를 수립
  -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 농업을 실시하는 농민이 전체의 4%에 불과한데 이를 확대해야만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소하고 수출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직접지불제를 강화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농민 중 환경에 기여하는 활동만으로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직접지불제 확대 정책 필요
- 젓소 목장의 위기
  - 젓소 목장의 경우 원유 가격은 고정되어 있지만 생산비는 늘어나고 수입분유 형식으로 치즈

유가공품이 반입되고 있어 목장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친환경 육성법 개념 정리

- 국가가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하여 왔는지가 현재 농업정책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됨
- 친환경 육성법이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음
- 환경을 지키는 것이 농사의 우선적 가치라는 인식 확대

○ 사과 대체과일 수입

- 정부는 사과, 배 등 국산과일가격 상승대책으로 대체과일을 수입하는 방법을 채택함
- 수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야 함
- 유럽의 사과는 크기가 작아 가공품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과일의 모양, 크기 등 시각적인 상태를 중요시하여 기상현상 등에 따라 과실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상품성이 급락함
- 외국에서와 같이 시각적인 상태가 미흡하더라도 과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것임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

- 기후위기에 적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됨
-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친환경 유기농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음

※ 스마트 농업에 대한 예산에 대폭 배정하고 친환경 농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음

- 기존 친환경 농업을 실시하고 있던 농민들도 고령화가 되면서 다 포기하고 있음

○ 직불금

- 직불금은 농민들이 자연환경을 고려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 직불금 지불 면적을 넓힐 게 아니라 다양한 농작물로 확대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

○ 흥동면 청소운동

- 흥동면에서는 매월 1일과 15일을 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면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청소를 실시하고 있음
- 환경은 포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함

○ 환경문제의 본질

- 환경에 부하를 주는 화학비료 등의 사용이 환경에 얼마만큼 문제를 유발하는지 파악하고 문제점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환경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덮어두고 다른것에서 답을 찾을 경우 정답을 파악하기 어려움
-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와 그 위험에 대한 대책을 찾아내기 어려운 이유는 재해 특성과 패턴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
  - ※ 일정한 패턴에 따라 기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고려한 대책을 수립하기 쉬우나 패턴을 파악하기 힘들어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움
  - 각 시군, 각 지역마다 취약한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분산대책에 대한 이해도가 미흡한 실정임
  -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지방은 소외되고 있음
-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 농민들이 기후위기를 경험하는 방식은 농사에 투입되는 비용이 올라갔다는 것을 체감하는 것에서 시작됨
  - 정부에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는 방식으로 농민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책을 수립함
  -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농민들의 신뢰가 허물어지면서 농민들의 기후위기 대응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음
- 농업의 공익적 기능
  - 농업이 기후위기의 주범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농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경향이 있으나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은 매우 높다고 생각함
  - 또한 농민들이 이에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농업의 취약성
  - 농업이 경제성만 추구하다 보니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음
  - 우리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많이 살렸으면 좋겠음
  - 농업에 이런부분(우리 농촌의 장점을 많이 살리는 것)을 접목시킬 경우 농약을 점 덜 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됨
- 축산의 근본적인 대책
  - 근본적인 식생활 변화가 필요함
  - 도시 소비자들이 바뀌길 기다릴 게 아니라 축산 이외의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궁리해야 함
  - 축산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함
-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농업
  -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함
  - 한국사회는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농민에 대한 얘기

- 는 부문별로 특정 시기에만 언급하는 것 같음
  - 농민과 직접 이야기 하는 자리가 계속 마련되어야 함(농업을 연구하는 전문가 등과 소통하지 실제 농민과 소통하는 자리는 많지 않음)
-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 농업이나 축산분야에 대한 현황파악이 미약함
  -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와 농업분야에서 피해를 어떻게 줄일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혼재되어서는 안 됨
  - 자율성은 점점 사라지는데 불안과 책임은 높아지는 현실에서 토론도 존중되는 방식이어야 될 것 같음
- 충남연구원, 사회단체와 협업
  - 도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어(도시계획, 환경계획 등 각종 중요계획 수립시 도민평가단 운영) 당사자와 연구자의 만남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홍성,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지연
  - 홍성에서는 200톤 분뇨처리가 가능한 바이오매스 가스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음
  - 입지를 찾는 데만 3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음
  - ※ 환경부, 농업축산식품부 등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있었으나 입지를 찾지 못해서 몇 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음
- 돼지농가의 고민
  -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서 분노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돼지농가의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의견 이라고 생각함

## 부록. 기후위기 당사자 인터뷰

그룹	농민	분야	벼농사, 밭농사
나이	61	성별	남
인터뷰 일자	2022. 01. 21.	지역	홍성

### ① 농사 중심 본인 소개

- 92년부터 홍성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논 6천 평과 밭 3천여 평을 일구고 있어요. 도합 1만 평 정도인데, 아들네랑 저희 두 가구가 짓습니다. 귀농자들 사이에서는 중농 정도 됩니다. 밭농사는 자급을 위주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논농사는 30~50가구 정도의 식량을 생산합니다. 100% 친환경이에요. 예전에 아이들 키울 때는 농산물을 팔아 현금을 만들어야 해서 생협에 납품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쌀 정도만 수매하고 나머지는 친인척이나 주변 이웃과 나눕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기후위기에 일조한다고 생각해요.
- 밭작물은 대부분 노지에서 키우고 고추만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어요.

### ②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얼마나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나?

- 제가 기후변화를 인식한 것은 녹색평론 때문이에요. 창간호부터 기후변화를 다뤘고, 30년 가까이 일관되게 소농 중심의 순환적 농업사회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잡지입니다. 기후위기는 말과 생태위기는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농사를 지으러 농촌으로 왔어요.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후위기를 염두에 두고 자급과 순환을 생각했죠. 물론 농사도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딜레마가 있기는 합니다. 농업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생에너지라고 해도 태양광, 전기자동차 이런 게 다 사상누각이에요.
- 50일 간의 장마, 전에 없던 병충해 발생 등 최근 2, 3년 사이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겪었고, 이제는 아주 둔감한 사람들까지도 큰일이 났구나 인식하는 상황입니다.

### ③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경험이나 영향이 있는지?

-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도 최근 2, 3년 사이 부쩍 피해를 실감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벼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금을 받기도 했어요.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의무가입) 3, 4년 전부터는 병충해도 극심하더라고요.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배추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저도 지난 2년 동안 처음으로 배추를 사서 김장을 했습니다. 콩농사 역시 신경도 안 쓰는 농사였는데 지난해는 아주 어려웠어요.
- 고추는 노지에 심으면 탄저병이 생길 수 있어 하우스에 심었는데, 지난해에는 폭염 때문에 농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재작년에는 긴 장마로 노지에 고추를 심은 사람들은 하나도 건지질 못했죠. 기후를 예측할 수 없고 날씨에 전전긍긍 하다보니 농사짓는 게 두려워요.

- 폭염과 강우 일수가 많아지고, 태풍의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세지는 게 걱정이에요. 지난해 처럼 장마철이 지나고 긴 장마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기후패턴을 알기도, 이 변화에 적응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웃들 피해 사례도 많아요. 재작년에는 많은 농민들이 농협에서 보급한 '새칠보'라는 품종을 심었는데 기후에 특히 안 맞아서 그 품종을 심은 농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많이 봤어요. 논이 시뻘건 게 말도 아니었죠. 지난해에는 '새누리'라는 품종이 그랬고요. 특히 질소비료를 많이 시비한 사람들이 피해를 봤고, 2년 연달아 벼농사에 실패한 사례도 있어요. 지난해에는 늦은 장마로 벼들이 많이 쓰러졌어요. 비교적 일찍 수확하는 '밀키퀵'이라는 품종은 늦장마 때문에 많이 쓰러지고 수확이 늦어져 농민들 맘고생이 심했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비가 계속 내려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름을 많이 넣지 않는 편이라 이제껏 벼를 쓰러뜨린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많이 쓰러졌어요. 아예 수확을 포기한 농민들도 있었어요.
- 농작물 피해도 피해지만, 농민들 건강도 우려됩니다. 지난해에는 옆동네 금평리에서 폭염에 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④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라 우려되는 점은?

- 안그래도 농업이 어려운데, 기후 때문에 더욱 악조건 속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야하는 점이 걱정입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고요. 예를 들어, 재작년에는 노지에 고추를 심은 사람들이 쫓딱 망했는데, 작년에는 그 반대로 하우스에 심은 사람들의 피해가 컸어요.
- 쌀 생산농가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느 정도 생산을 해왔는데,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까 싶어요. 어쩌면 우리가 먹을 것만 간신히 거들 정도의 식량위기가 닥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가 어떻게 몰라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품종을 심었어요. 위험 분산이죠. 주로 '밀키퀵'과 '삼광'을 나눠서 심었는데, 다행히도 '삼광'은 선방을 했어요. 축산업 쪽을 보니 조사료 재배가 영 시원치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식량생산이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쌀이 남는다고 하지만, 일정 정도 수입 때문이고, 결국은 기후변화로 인해 수입도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국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소수사태처럼 말이죠.
- 농사가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상황이에요. 올해 '삼광'은 잘 견뎠지만, 내년에도 견딜 수 있을까. 이것저것 계속 바뀌가며 심어야 하는 상황이고, 종자를 선택하는 데 고민이 커요. 농사가 도박처럼 됐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기후변화로 노지농사가 어려워져 많이들 시설재배로 바꾸고는 있지만, 폭염에 하우스에서 일하는 게 사실은 무척 힘들어요.

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제도나 정책이 필요한가?

- 탄소중립 운운하며 '논물 가두기를 줄여라' '농업 부산물을 태우지 마라'고 하는데, 실은 정부가 해야할 것은 하지 않고 지엽적인 것들만 농민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농약과 비료 쓰는 농업을 어떻게 친환경으로 유도할지, 관행농에서 유기농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하도록 선택형 직불제를 강화하는 방법이 뭘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해요. 농민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가는

데 있어 동력을 제공해야 하죠. 생태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며 땅을 가꾸는 소농 지원 및 육성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와 농촌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면 농민수당이나 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농촌에서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되면 소규모, 친환경, 자급 위주의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노동력이 더 필요하다고 해요. 지금도 인건비는 비싼데 인력은 없어 생산한 거 수확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도시민이 농촌으로 유입되면 지금의 인력난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고요. 그러자면 주거문제 해결과 공유지 마련, 지역자립경제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농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고 포용하고 정책도 함께 마련돼야 해요. 친환경, 소농 중심으로의 전환이 기후위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이자 그린뉴딜의 핵심입니다.

그룹	농민	분야	과수
나이	57	성별	남
인터뷰 일자	2022. 02. 11.	지역	예산

① 사과농사와 가공 중심 본인 소개

- 저는 귀농이라면 귀농인데요. 예산에 내려온 지 17년 되었습니다. 장인장모님께서 40년 동안 멋지게 일궈오신 사과밭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생산에 가공과 양조, 체험 관광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사과밭은 약 1만평 가량이고, 예산지역 기준에서는 중간 혹은 조금 큰 규모에 해당 합니다. 사과품종은 사계절 체험을 위해 조생종과 중생종, 만생종을 모두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신지식인 과수 및 가공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도 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보니, 사과농사와 농업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 저희 농장에서 생산한 사과만으로는 가공과 양조를 위한 물량이 부족해 지역농민들에게 청치(덜 익은 사과)나 비상품성 사과를 시중가격보다 2, 3배 높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힘들게 생산한 농산물에 제대로 값을 매겨주고 농산물 가공의 가치도 알리고 예산 농산물의 이미지도 관리하고 싶어서죠.

②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얼마나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나?

- 아마 10여 년 전부터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4, 5년에 한 번 꼴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 10여 년 전부터는 매년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기후피해가 있습니다. 피해가 일상이 되었죠. 앞으로 사과농사를 못 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4, 5년 전부터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미세살수시설이나 태풍피해 저감 시설 등을 설치했어요.
- 한국 농업 중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곳이 사과농업입니다. 사과농사의 경우, 사계절이 뚜렷하고 일교차가 있어야 하며 여름에 30도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면 안 되고 강수량은 연평균 600미리 이상 되어야 하는 기후조건이어야 합니다. 조금은 추운 지역에서 잘 되는 농사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과재배 적합지가 없어지고 있고, 대표적인 곳이 예산입니다. 다른 대표 사과재배지인 밀양이나 장수 등은 해발고도고 300미터 정도로 높고 일교차가 심한 데 비해, 예산은 해발 50미터예요. 기후변화에 취약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사과 주산지인 강원도 영월이나 정선, 경기도 포천, 파주, 화성, 연천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③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경험이나 영향이 있는지?

- 최근 10년간 계속 피해가 있어왔어요. 동해와 서리 피해, 일소 피해가 대표적입니다.
- 2월부터 따뜻해지다보니 나무가 일찍 깨어났다가 동해, 서리 피해를 입어요. 일반인들은 겨울에 추워서 나무가 얼어죽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겨울에는 영하 10도에서 20도가 되더라도 나무가 수액을 빨아올리지 않고 쉬기 때문에(휴면상태) 추위도 괜찮고 뿌리까지 얼 일도

없거든요. 2월부터 따뜻해진다든지 봄이 일찍 오면, 나무들이 '야, 봄이다!' 하고 깨어나 뿌리에서 수분을 끌어올려 나무로 공급하고 핏줄이 통하기 시작해요. 20도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꽃샘추위가 오면, 가는 호스가 쉽게 얼어터지는 것처럼 나무의 핏줄이 터지고 고사하는 거죠. 기후변화 때문에 전반적으로 따뜻해졌다고 하지만, 역시 기후변화 때문에 요즘에는 3월, 4월에도 서리가 내리고 눈이 오기도 하잖아요. 과일나무는 대목(접을 붙일 때 그 바탕이 되는 나무)이 따로 있는데, 동해 피해 적은 걸로 한다면 하는 고민도 해봅니다.

- 또 후지사과의 경우 4월 20일쯤이 개화기인데, 이때 동해나 서리 피해를 입으면 과일이 못 생겨지거나 수정이 안 됩니다.
- 요즘에는 일소피해도 심각해요. 여름에 30도 넘는 고온이 지속되면, 비대기(과일이 커지는 시기) 사과가 화상을 입어요. 쉽게 말해 데이는 것인데, 피해가 심각해 저희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 과수원 곳곳에 선풍기를 달기도 합니다.
- 모두가 동시에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의 기후조건에 따라 혹은 밭의 위치나 바람의 흐름, 일조량 등에 따라 피해정도가 다르고 개별 농민이 재배기술로 미리 커버하지 못할 때 큰 피해가 생기는 거죠.
- 대비를 안 하면 사과농사를 못 짓는다는 인식을 이웃농가들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만 해도 나무 밑둥 60센치 정도에 흰색 수성페인트를 칠해 나무가 봄이 오는 걸 늦게 느끼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동해 피해를 예방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4, 5년 전에 미세살수장치도 설치했고 태풍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도 했습니다. 여름사과에는 우산 같은 그늘막도 씩웁니다.

④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라 우려되는 점은?

- 앞으로는 사과농사가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도 정과비율이 떨어지고 색깔이 안 나는 게 농가들의 걱정입니다. 비가 와야할 때 안 오고 안 와야할 때 오고, 그러다보니 탄저병만 해도 안 생기던 시기에 생기기도 하고요. 색깔이 안 나고 당도가 떨어집니다. 결국 정교한 시설 투자와 노동력, 재배기술이 더 요구됩니다.
- 지금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관수설비가 다 되어있어요.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농업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하우스만 안 씩웠지, 거의 시설재배라고 봐야해요. 요즘 ICT 등 스마트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은 생산비가 높아지고 그러다보면 농업경쟁력은 떨어집니다.
- 별이 없어서 인공수분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봄에 꽃가루은행에서 공급해주면, 벌 대신 사람이 직접 뿌리거나 터치하는 식으로 수분을 시킵니다. 우리 농장의 경우 벌통을 놓기도 하지만 역부족이에요.
- 또하나, 개화시기에 추워지는 게 제일 걱정입니다. 최근에는 사과밭 군데군데 깡통을 놓고 불을 피워(연무법) 연기로 냉기를 밀어내고 따뜻한 온도를 유지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개화시기에 추워지면 열기구를 띄어 얼마만큼의 상공에 따뜻한 공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인공적으로 끌어내리기도 하더라고요.

- 일소피해도 점점 심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부 그늘막을 치기는 했지만, 사실 넓은 사과밭 전체를 그늘막을 칠 수도 없고, 실제 실행하자면 굉장한 비용과 노동력이 듭니다. 저희는 4년 전에 미세살수장치를 설치했는데요, 30도가 넘어가면 살수가 되고 실제로 3도 정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로 인한 병충해 발생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비 온 뒤에도 병해충이 발생하잖아요. 습에 대한 컨트롤 어렵다는 게 큰 문제예요.
- 태풍에 대한 대비도 한다고는 하지만, 태풍의 빈도가 잦고 강도도 세지는데 얼마나 견고하게 시설을 할 수 있을까요.
- 예산지역은 동해와 일소피해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사과농사가 어려울 거예요. 올해부터는 예산군에서 그늘막과 미세살수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부농가의 특수한 피해가 아니라 대부분 농가의 피해이고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되었겠죠.
- 당장은 주산지가 옮겨가지만,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은 나라의 특성상 여기서 안 된다고 멀리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품종도 중요한데, 판로를 생각하면 기후만 고려할 수가 없거든요. 소비자의 선택이라든지 유통도 고민을 해야겠죠.

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제도나 정책이 필요한가?

- 10여 년 전부터 사과농업의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고 대책 수립을 못하면 앞으로 사과농사는 어려워요. 특히 예산군이 그렇습니다. 전에는 관수시설만 해놔도 됐지만, 이제는 더 많은 시설과 장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현재 사과농가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미세살수장치, 그늘막, 선풍기 설치 등의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아요.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이나 대체작물의 연구와 보급이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의 조건 속에서 적합하고 가능한 것을 찾고 피해를 줄이거나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생산은 물론 유통과 소비를 포함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행정에서 절박함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주든, 특별팀을 꾸리든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세밀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⑥ 기후변화에 대한 사과작목회의 역할이나 공동대응이 있는지?

- 10년 전만 해도 작목회가 활성화되어있어 재배기술을 교류하고 학습을 하고 공동브랜드로 출하를 했습니다. 근데 후계농이 없이 그대로니까 다들 연로하시고 그러다보니 동력이 없어요. 예전에는 작목회별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행정이 만든 APC(예산농산물유통센터)로 출하를 하니 개별특성은 사라지고 공동 논의의 장도 적어진 것 같습니다. 농가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사 피해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있지만 개별농가의 고민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⑦ 기후변화와 농업 관련해서 더 하고싶은 이야기는?

- 사과농사를 비롯해 농업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과수부분이 선물용, 제수용으로 발달하다보니 사과의 크기나 색깔, 모양에 집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노동집약적이고 생산비가 많이 들죠. 모양을 좋게 하려고 특히 색깔을 위해 '알 돌리기'를 해야 하고 한 번 쓰고 버리는 반사필름도 깔아야 하고요. 선별에 대한 비용도 큼니다. 모두가 크고 색깔 좋은 것을 생산하지 않고 용도에 따라 생산하면 생산비도 줄이고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계화에도 유리하죠. 외국은 과수의 7, 80%가 가공용이고 바로 먹는 식탁용은 20~30%입니다. 맛있는 과일과 가공했을 때 맛이 좋은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농업정책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룹	농민	분야	축산(젓소농가)
나이	44	성별	남
인터뷰 일자	2022. 01. 21.	지역	홍성

① 젓소목장 중심 본인 소개

- 충남 홍성에서 유기축산으로 젓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에서는 주로 벼농사를 공부했어요. 집안이 젓소목장을 하고 있었고요. 친환경농업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계속 그런 교육을 받아서인지 젓소를 키우고 유기농 축산제품(요구르트)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젓소는 70마리이고, 아직 청소년이나 어린이인 소까지 하면 80~90마리입니다. 유기축산이라고는 하지만 일반농가와와의 차이는 유기농 사료 급여, 면적 대비 적은 사육두수 정도예요. 하지만 생각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친환경이라든가 동물권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젓소 두수는 같은 면적 대비 다른 농장의 60, 70% 수준으로 키웁니다. 더 줄이고 싶지만, 농가 경영문제가 있어 더 줄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경축순환을 할 수 있는 논이 6천 평, 소 먹는 풀을 키우는 밭이 대략 2만 평입니다. 우유는 팔지 않고 전량 유기농 요구르트로 가공해 생협 매장이거나 지역 가게에 납니다.

②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얼마나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나?

- 지역의 농업학교(풀무농업고등학교)를 다녀서 일찍부터 기후변화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95년 즈음 환경문제가 대두될 때부터 자주 접하고 계속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고 보수정권 2기가 지나가면서 친환경농업 정책의 방향과 속도가 퇴보했다고 생각해요. 또한 기후변화, 환경문제는 도시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을 보면 농촌의 농산물은 다 도시로 가고, 시골 사람은 다 도시에서 택배로 주문하잖아요. 일회용품이나 원료, 에너지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기후변화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 젓소농사의 경우 폭염이 지속돼 생산량이 줄어든다거나 유기농 사료를 외국에서 수입하다보니 사료값이 오른다거나 하는 걸로 기후변화를 실감하는 편이죠.

③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경험이나 영향이 있는지?

- 젓소는 더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도 대비가 필요한데요, 기후변화로 폭염일수가 늘어나고 있어 걱정입니다. 사실 홀스타인이라는 젓소 품종 자체가 우리나라 기후에 맞지 않거든요. 저는 여름에 차광망을 치고 축사 지붕에 물도 뿌리고 선풍기도 틀어주고 합니다. 추위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면 영향이 있고요.
- 또하나, 지난해 초지농사가 잘 안 됐는데, 비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장마 시작 시기와 끝나는 시기가 소풍 재배시기 조절에 중요한데, 그 패턴도 바뀌고 있어요. 물론 소풍은 채소 재배

에 비해서는 덜 예민하긴 합니다.

- 지난해에는 늦가을에 비가 와서 벼짚을 제대로 수거(곤포작업)하기 어려웠고 겨울에 수거를 했어요. 그러다보니 노동력은 많이 투입되는데 벼짚의 품질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벼짚생산량이 격감하고 한우농가들은 벼짚 수급이 어려워 난리였다고 해요.
- 생산량 감소가 가장 큰 피해일 거고, 실제로 원유생산량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울 땐 덜 나오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보다는 지금의 과도한 생산체제로 인한 피해라고 봐야 맞죠. 축산업에 환경 과부하가 걸려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고서는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정부가 이와 관련한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약간의 기후변화에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④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라 우려되는 점은?

- 보통의 낙농업은 기후보다는 낙농자체가 사양사업이라는 게 더 힘든 상황인데요, 사양산업이 되고 생산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기후문제와도 관련이 있죠. 사료만 해도 수입산은 현지 기후사정에 따라 점점 비싸지고 국내산은 양이 적고, 기후변화로 사료값은 계속 오르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생산성은 감소하고 있어요. 생산비가 상승하면 우유값도 올라야하는데 이걸 10원, 20원만 올라도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거든요. 기후변화로 인한 비용 상승, 원료 공급의 문제는 농가의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집니다. 유기농 사료의 경우, 일반사료보다 등락폭이 크지 않지만, 영향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고기값이나 우유값은 올라가야 맞고 동시에 고기나 우유 소비는 줄여야 합니다.
- 또하나, 기계화가 되어 가축사육이 용이해졌다고는 하나, 저는 오히려 농가들의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벼짚의 사례가 대표적이죠. 벼짚 수거는 완전히 기계화되고 대형화된 상황인데, 늦장마로 땅이 질어 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예전에는 가을에 추수 끝나고 사람들이 직접 벼짚을 거뭇고 그게 더 자연스럽고 피해를 완화하는 방식이었는데, 기계로만 하다보니 이제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기계가 못 돌아가면 당장에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기계화, 대형화 되다보니 한우농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기계를 쓴다고 해도 노동량이나 기계유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후문제에 대한 대처능력도 떨어져요.

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제도나 정책이 필요한가?

- 대부분의 농가에서 폭염을 걱정하고 있고 실제로 폭염에 대비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지원사업이 있어요. 하지만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밀집사육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축에서 나오는 메탄 자체도 줄여야 하고요. 일반 산업분야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실제로 기업이 감당하고 있어요. 축산업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 결국 축산업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가축 수는 물론 면적 대비 두수를 줄이고 농장을 잘 자꾸는 방향으로 가야죠.

-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규제와 지원이 모두 필요합니다. 축사들은 점점 규모화되고 있고, 현재의 정책도 대규모 축산업 위주예요. 축산농업인 지원사업이라는 게, 정착 받아야할 작은 농가는 받기가 어렵고 받지 않아도 되는 큰 농가들이 받기 쉬운 구조예요. 작은 농가는 받을 여지가 없으니 뒤처지고 경제성이 줄고 결국은 없어지게 됩니다. 규모가 작아도 소득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지원사업이 바뀌어야 해요. 대규모 농가는 두수와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오히려 바이오가스시설 같은 걸 지원해주면 되는 거죠.
- 규모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한데, 면적대비 두수가 줄어드는 만큼 직불금 형태로 직접 지원을 하고, 사육규모가 줄어들어 소농가가 되면 그에 맞는 친환경 인증이나 융복합산업(가공, 견학, 체험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금의 축산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동네 사람의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지역 관광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시설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소농가 2, 3 개 축사만 모여도 그에 맞는 바이오가스시설을 지원해줘야 하고요. 일본만 해도 웬만한 농장에 다 바이오가스시설이 있어요. 인근 청양에도 바이오가스시설을 잘 운영하는 농가가 있고요. 가축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빨리 개발, 활용하지 않고 왜 태양광에만 매달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국내생산량을 묶어놓고 다 수입하는 것은 농촌과 축산업을 죽이는 정책이에요.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지금의 경제체제는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시켜요. 이제라도 자급지향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저희 목표는 소를 더 키운다든지 정해진 생산량을 맞추려고 무리한다든지 그런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규모와 친환경적인 생산방식이 기후위기 대응력이나 탄력성을 높인다고 생각해요. 가동률이 100%라면 정상시에 70~80%만 운영하는 방식을 생각해봐야 하는 거죠. 기후변화에 의한 생산량 감소분을 피해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지금의 과도한 경영방식을 돌아보고 기후변화를 염두에 둔 여유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룹	농민	분야	축산
나이	70	성별	남
인터뷰 일자	2022. 02. 10.	지역	홍성

① 축산 중심 본인 소개

○ 저는 1953년 홍성군 광천읍 월림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977년 군에서 전역한 후 고향에 정착하여 경종농업과 축산을 시작했어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대한한돈협회장과 대한민국축산단체협의회회장을 맡았었습니다. 현재 홍성군 광천읍 월림리에서 7500두의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②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얼마나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나?

○ 축산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은 국내 총 배출량의 1.3%에 불과한데 축산업을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정부가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③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경험이나 영향이 있는지?

○ 돼지는 피부로 숨을 쉴 수 있는 땀구멍이 없어요. 더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에어컨을 가동해도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돼지 사육의 최적 온도는 18에서 24도까지가 좋다고 합니다. 32도, 33도로 올라가면 돼지들이 헐떡거리고 밥을 안 먹어요. 40도가 육박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모든 몇백 만 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영천에서 40도가 넘었을 때 영천에 있는 농가에 어떤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온도를 낮추지 않으면 모든 유사산을 일으킵니다. 모든은 자기가 살기 위해 자식을 떨어내기도 해요. 수태가 안 되기도 하고요. 번식부터 비육돈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④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제도나 정책이 필요한가?

○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대비책은 첫 번째 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을 설치하지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죠. 지열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축사 바닥에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터널을 만들어서 13도 정도 되는 지열을 끌어서 돼지들한테 불어넣어줄 수도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단열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 벽체를 60cm 정도로 두껍게 하고 쿨링패드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죠.

○ 요즘은 기준에 맞춰 분노를 정화방류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정화방류 시설을 하는 데 많게는 5억, 10억이 들어요. 시설 투자비가 코로나 이후 그 이전에 비해 몇 배씩 올랐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농가들은 스스로 하고 그렇지 않은 농가들에게는 정부에서 장기 저리로 빌려주든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가들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시설업체들이 농가를 봉으로 아는 거 같아요.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

고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부 기술도 축산농가에게도 알려줘야 하고요. 공무원들의 탁상 공론으로 농가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사육 밀도를 줄이는 일이에요. 피부호흡을 못하고 구강으로 호흡하니 까 밀도가 높으면 온도가 올랐을 때 그 영향이 곧바로 나타납니다. 밀도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농가에서는 난리죠. 사육 밀도는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농가들에게 그렇지 않은 농가들과 다르게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스스로 노력하는 농가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 돼지는 사료 영양분의 50% 정도를 소화 흡수하고 나머지 50% 정도를 분뇨로 배출해요. 환경의 부영양화가 축산 분뇨 때문이라고 하지만,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축산 분뇨를 대신 사용하면 우리나라 내에서 퇴비 소화가 가능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학비료의 양에서 10분의 1로 줄여야 하천 등의 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 사료의 에너지를 낮추고 소화 흡수율을 높여 배출되는 영양분을 줄이면 분뇨로 인한 온실가스도 덜 나올 거예요. 농가에서는 돼지를 빨리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이 부분이 점점 더 필요해지겠죠.
- 정화 방류 시설은 3500~5000두 이상의 농가에서 가능한 시설이고 그 밑으로 키우는 농가에서는 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처리장을 신설하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반대를 하는 문제가 있어요.
- 흥동이나 은하면처럼 축산 농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집단 처리 시설로 바이오가스로 발전소를 설치하면 온실가스도 줄이고 퇴비 액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 우리 농가에서는 액비를 발효시켜 정화방류하고 발생하는 퇴비의 3분의 2정도는 2만평 정도의 사료작물을 심는 데 뿌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웃 농장에서 갖다 쓰고 있어요.

그룹	어민	분야	공동어장
나이	62	성별	남
인터뷰 일자	2022. 02. 06.	지역	서산

① 어업 중심 본인 소개

- 도성리에서 나고 자랐고, 아버지 따라 소우도에서 얼마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와 산 지 40년 되었다. 바지락 공동어장도 하고, 어선업도 하고, 낚시배도 해보았다. 어업종사는 50년 정도 있었고, 지금은 바지락양식장 수입과 겨울철 감태로 고수입을 내고 있다.

② 기후변화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

-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과거와 달라진 것은 아주 많다. 이곳 도성리는 방조제가 막혀 민물 유입이 차단되어 공동양식 어장에 영향을 미친 점, 주변에 양식장이 있어, 거기서 나오는 소독제의 영향, 그리고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들어서면서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온배수의 영향도 크다고 본다. 대산공단에서 나오는 분진 등은 바닷가에 나가보면 물가에 새카맣게 떨어 지는데 이게 금방 나타나기보다 서서히 바다가 죽어가게 하는 것 같다.

③ 어떤 부분에서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본인 및 주변의 피해사례?

- 과거에는 김 생산도 했었는데 수온이 안 맞으니 이제 김 생산은 아예 하지 않는다. 기후변화도 문제지만, 방조제 공사로 민물이 안 내려오는 게 문제라고 본다. 도성리 수로가 막히기 전에는 말 그대로 물 반 고기 반 이었다. 바지락은 굵어도 굵어도 씹 없이 나오니까 필요한 양이 정해지면 가구당 굵는 양을 정해주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필요한 양을 맞추기 위해 상한선을 두지 않고 무조건 채취해서 전체 필요한 양을 맞추기 급급한 실정이다.
- 방조제 기술이 좋아져 과거에는 방조제가 막혔어도 조금씩 민물 유입이 되었는데, 지금은 전혀 내려오는 게 없다. 비가 많이 올때 마다 수문을 여는데 갑자기 민물 양이 많이 밀려오니 바지락 양식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요인이 된다. 방조제 일부를 터서 꾸준하게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고 물때에 따라 하루 두 차례 물길이 흐르는 기수역의 공간이 살아야 하는 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고 갯벌을 살리는 길이다.

④ 기후변화가 본인의 일에 줄 수 있는 영향과 우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점점 겨울이 없어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그래도 겨울이 추워져 감태 생산이 좋은 편인데, 기온이 높아지면 바다생산에 차이가 크게 난다. 과거는 겨울은 겨울답게 추웠고, 이 앞 도성리 바다는 얼음이 10센티 정도 얼어 해빙이 뚱뚱 떠다니곤 했다. 그해 겨울이 추우면 다음 해 바다양식 소득이 늘고 겨울이 덜 추우면 다음 해 생산량이 줄어든다. 겨울철에 날이 추워지면 망둥이가 땅을 파고 깊이 들어가니 그걸 잡아 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겨울철 날씨가 추워져 물고기들이 갯벌 깊숙이 들어가 땅을 파니 산소 공급이 잘 되어 갯벌에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또, 요즘은 감태의 맛을 알고 찾는 사람이 늘어 겨울철 소득에 큰 도움을 얻고 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감태 생산에 영향이 미칠까봐, 바지락 생산이 줄어들까 걱정이 된다.

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제도나 정책이 필요한가?

- 공동어장이 잘 되고 갯벌을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민물이 유입되고 해수가 원활하게 이동하는 기수역이 복원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막았던 제방을 트고 과거처럼 갯벌로 되돌려야 하는게 정답이다. 갯벌은 기후에 민감하다. 요즘은 블루카본이 기후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갯벌을 복원하는 정책을 펴야한다.

그룹	어민	분야	선주
나이	56	성별	남
인터뷰 일자	2022. 02. 05.	지역	태안

① 어업 중심 본인 소개

- 2006년도에 귀어를 해서 어선업을 했다. 처음에는 신진도에서 어선업을 하다가 2년 뒤인 2009년도에 고향인 원북면 청산항으로 들어왔다. 반농반어업은 아니고 어업이 한 80% 정도 되고 농업은 그냥 양념거리 정도로 한다.

② 기후변화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

- 아주 심각하다고 느낀다. 육지에서 온도는 0.1도나 0.5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별로 체감을 못 한다. 물론, 농작물도 영향이 있겠지만. 바다에서의 0.1도는 엄청 크다고 한다. 어족 자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걸로 같은 선주들이 얘기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

③ 어떤 부분에서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본인 및 주변의 피해사례?

- 체감상으로 느끼는 게 어족 자원의 감소인데. 주로 잡는 어종이 우럭하고 광어다. 특히, 냉수성 어종인 우럭이 수온의 영향에 민감하기 때문인지 날로 줄어들고 있다. 우럭을 낚기 위해 점점 멀리 나가야 하고, 같은 고기양을 잡으려면 더 많은 기름을 때야 하는 상황이다. 피부로 느끼진 못하지만, 개인적 경험으로 15년 동안 아주 미약하더라도 0.1도 정도는 올랐을 것이다. 서서히 조금씩 변화한 것이 예전에 비해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니 기후변화에도 역행하는 것 같다. 아마 바다가 넓으니깐,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 말고도 넓은 바다에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을거라 생각한다.

④ 기후변화가 본인의 일에 줄 수 있는 영향과 우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기후변화로 어종감소도 문제지만, 수온이 오르면서 새로운 어종이 들어오는 것이 걱정된다. 다랑어가 잡히거나 참돔이 태안을 지나 인천해역까지 올라온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변화하는 어종에 대한 이해, 잡는 법, 활용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육상에서는 친환경자동차 엔진개발이나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개발 등은 하는데 어선도 그런쪽으로 변화하고 준비하는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고 본다.

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제도나 정책이 필요한가?

-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일종 항구가 아니다 큰 항구가 아니라서 보통 포구라고 부른다. 옛날에 똑딱선 다니던 나룻배가 나가서 받아오던 그런 포구라 태풍이 온다든지 풍량이 일면 어디 피할 데도 없고 크레인으로 들어서 올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저희들이 당장 필요한 것은

방파제라든지 태풍, 해일을 대비해 피항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가장 필요하다. 근처 학암포만 해도 항포구가 날로 발전하는데 여기 청산리는 몇십 년 동안 변화가 없다. 부잔교 하나 설치했지만 청산리 배가 모두 모이면 60척 정도 되는데 선착장에는 서로 부딪치니까 시우치저수지 앞부터 갯벌에 정박하고 있다. 청산항은 과거 구도항에 버금가는 포구였고, 지금 우리마을 어선은 주로 1톤 내외 선외기이고, 큰 배는 그것의 세네배 정도 되는 어선 몇 척뿐이다. 저는 7.93하고 9.16톤 그 조그만 보트 하나 세 개 있는데 아주 힘들다. 매년 선거때마다 군수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현재까지 항포구 확장 된 적이 없다.

- 또, 생분해 어구 같은 친환경 어업용품을 개발해서 보급, 확대해달라. 갯벌의 소중함과 해양보호구역 관련 교육 등도 지속해 달라. 서산태안환경연합에서 진행 한 <가로림만생태안내자 교육>과 <해양보호구역 명예지도원>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여기 어촌뉴딜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활동해야 한다.

그룹	어민	분야	양식장
나이	59	성별	남
인터뷰 일자	2022. 02. 06.	지역	태안

① 어업 중심 본인 소개

- 저는 여기서 나고 자랐고, 30대 중반까지는 객지 생활을 하다 돌아왔다. 고향에 내려와 30대 중반부터 양식업을 계속 해오고 있으니 26년 27년 된 거 같다. 가두리양식업으로 키울 수 있는 종이 36종 있는데 그 중 송어, 우럭, 돔. 이렇게 3종을 키운다. 주로 봄에 입적시키고 가을에 출하하거나 어종에 따라 1년 또는 2년 양식하는 경우도 있다.
- 여기는 수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보니 요즘은 주로 송어양식을 주로 한다. 송어는 높은 온도를 좋아하며, 보통 2년 정도 키운다. 우럭도 2년 키우고, 돔의 경우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기 때문에 중간종묘를 사와서 키운다. 12월 달 되면 수온이 보통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돔은 얼어 죽기 때문에, 5월에 200g이나 300g짜리 중간 종묘를 사다가 한 6개월 정도 키워서 가을에 판다.

② 기후변화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

- 우리 양식업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은 없어 구체적으로 예기하기는 어렵지만 기후변화나 생태, 환경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게 우리들이다. 어느 여름에는 기온이 높아 고기가 열산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겨울에는 기온이 떨어져야 하는데 안떨어져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③ 어떤 부분에서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본인 및 주변의 피해사례?

- 우리 어릴적엔 눈도 엄청 많이 왔다. 이곳은 당시 간척을 하지 않은 기수역이다보니 겨울에는 성애라고 바닷물이 얼어 50cm, 60cm 이런 얼음덩이가 막 떠다니곤 했다. 당시는 태안 앞까지 물이드나들던 때인데, 그러니까 서산가사리 앞에서 강수리 앞까지 물이 들어갔었고 그쪽 지역은 굉장히 얇은 갯벌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제 그쪽은 육지화가 된 상태다.이제 방조제로 막히고 나서인지 기온도 많이 따뜻해지고 그런 경우를 본적이 없다. 온도가 옛날만큼 안 내려가니 겨울철 바다가 언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 또, 양식을 하다보면 고기가 무탈하게 잘 자라주는 해가 있고, 어느 해는 원인은 정확히 몰라고 병이 심해지고 몰살당하는 경우가 생겨 큰 손해를 보는 해가 있다. 대부분 여름에 고수온으로 병이 많이 생기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겨울에 굉장히 추워야 바다에 있는 균도 죽는데 겨울이 춥지 않은 해는 그해 여름에 병이 많이 오는 것 같다. 확실히 겨울이 따뜻한 해는 그해 여름에 기온도 굉장히 높고 균도 많아 병이 온다. 겨울이 춥지 않으면 충이 살아있다가 고기들한테 달라붙어 기생하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균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해 고기들한테 달려들어 몰살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

- 양식장 운영하면서 여름철 태풍피해 경험이 제일 컸는데, 2010년 곤파스와 볼라벤 왔을 때 가두리양식장 설비가 종잇장처럼 구겨져 한쪽으로 쳐박혀 버렸다. 시설물도 망가지고 기르던 고기들도 다 없어지고 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 10년 12년 전인 것 같은데 그 당시 피해가 제일 컸다. 당시는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라 보상도 적었는데 그 이후 모두 보험을 들도록 해서 요즘은 그 피해액의 8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보통 고수온이 되면 28도 이상 올라가면 죽는 고기가 있는데, 정부에서 홍보를 해주니까 우리들은 위험한 고기는 안 키우고 적합한 고기만 키운다. 안면도나 창리같은 경우 우럭을 키워 고수온 피해를 본적이 있는데 우리는 교육받은 대로 송어나 돔을 키워 피해를 보지 않았다.

④ 기후변화가 본인의 일에 줄 수 있는 영향과 우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아무래도 우리같은 양식업자들에게는 수온변화가 가장 걱정된다. 30도 이상 고수온이 한 달 정도 유지된다면, 앞으로 그런 날이 온다면 피해를 안볼래야 안볼수가 없다. 그게 가장 걱정이다. 겨울의 경우 보통 영하 2도까지는 내려가야 하는데 겨울이 따뜻해져 어병이 많이 생길까 염려된다.

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제도나 정책이 필요한가?

- 태안화력이 생기고 처음에는 까만 분진가루가 여기 바다위에 새카맣게 내려 앉았다. 당시는 저감장치도 없어서 더 심했다. 석탄은 줄이는게 맞다고 본다. 또,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수온이 올라가도 폐사하지 않는 어종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과거에 천수만 간척하기 전에는 어종도 많고 맨손어업을 해도 먹고 살기 풍족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청각, 파래 같은 각종 해조류도 넘쳤고 김 양식도 많이 했다.
- 역간척 얘기를 하는데 현재 얘기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조금씩 해수유통하면 그 피해도 조금씩이지만 오래 가게된다. 빨리 터 놓으면 복구도 빨리 될 거다. 이눈치 저눈치 보지 말고 해수유통을 하고 갯벌로 되돌리려면 아주 화끈하게 터 놓아야 한다. 돈이 들더라도 피해가 우려되는 곳엔 보상을 해주고 제대로 역간척을 해야 갯벌이 살아날 수 있다.

그룹	이주민	분야	이주노동자
나이	46	성별	남
인터뷰 일자	2022. 02. 20.	지역	아산

① 고향 및 고향의 기후특성

○ 저는 필리핀의 민다나오에서 태어났습니다. 민다니오 지역은 태풍이 많이 와서 힘들어요.

② 2021년 12월에도 태풍에 의한 필리핀 루손지역 등이 피해를 입었는데 민나니오의 피해는?

○ 민다나오보다는 비사야, 그리고 루손 지역에 피해가 아주 많았어요. 물론 태풍 오면 민다나오 지역에 피해가 커요.

③ 기온상승으로 기후재해 위험이 높아지는데 환경문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 필리핀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런 기후의 변화가 많은 문제를 낳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비도 많이 내리고 수면도 점점 올라오면서 땅이 좁아지고 있다는 말을 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접하고 있어요. 개발을 위해서 많은 나무를 없애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무가 많은 지역을 개발해서 농장을 만들고 집을 짓고 공장을 만들면서 살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④ 필리핀에서도 환경변화와 기후위기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나?

○ 네. 저는 필리핀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 자주 접하고 있는데요. 뉴스를 통해 환경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태풍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환경의 변화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어요. 이런 위기에 대해 들을 때 필리핀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해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고향인 필리핀에 대해 소식을 들을 때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듣고 있어요.

⑤ 교통의 발달로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등 전 지구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네. 맞아요. 심지어 발달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진단과 검사도 빨리 받고 치료를 받기도 쉽지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치료도 어렵구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백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필리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⑥ 부자들에 비해서 가난한 자들은 정보도 빨리 접하지 못하고 지원도 미흡해 피해가 큰 것 같

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시골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예전에 올란다 태풍이 필리핀에 왔을 때에도 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생겼고,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 ⑦ 이제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하나?
  - 저는 저와 가족을 위해 한국에 와서 일하고 가족을 위해 일하지만,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무를 없애고 개발만 생각한다면 자연은 파괴되고 많은 이들이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이 파괴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될테니까요.
  
- ⑧ 혹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해서 주변사람과 얘기를 나눠본적이 있는지?
  - 가끔 친구들과 뉴스를 보며 이런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때가 있지만, 많지는 않음
  - 하지만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음
  
- ⑨ 정부에서 수립해야 할 대책은?
  - 저는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환경이 파괴되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을거라구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나무를 많이 심고, 오염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룹	이주민	분야	결혼이주여성
나이	35	성별	여
인터뷰 일자	2022. 02. 20.	지역	아산

① 고향과 한국에 온 시기는?

- 고향은 네팔 카트만두이고, 한국은 2012년에 왔음

②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 음식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언어소통에 가장 어려움이 컸음

③ 기후에 적응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었나?

- 네팔도 사계절이 있어 한국과 비슷함
- 카트만두는 바람이 좀 적고 포근한 편이고 비가 오면 좀 추워서 더 덥지 않음

④ 몇 년 전 네팔 지진으로 어려움이 크지 않았나?

- 평소에는 작은 지진이 생기기도 하는데 얼마전 큰 지진치 생겨 큰 피해가 있었음
- 시골에서 특히 피해가 아주 심해서 마음이 아팠음

⑤ 지구온도 상승에 따른 지구와 환경의 변화 등 기후위기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는지?

- 네팔에서는 태풍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고 한국에서 처음 태풍을 경험하였는데, 바람이 세계 불고 창문이 흔들려 무서웠음

⑥ 네팔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쓰레기나 대기오염에 대해서도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지?

- 최근 네팔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해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토바이를 비롯해서 배기가스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해요. 요즘에는 네팔에서도 전기자동차에 대해 사람들이 구입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해요.

⑦ 해발 5천m 높이의 산 위에서는 많은 쓰레기가 발견된다고 하던데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쓰레기 등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 지는 것 같음

- 좀 빨리 해결하면 좋겠어요. 네팔뿐만 아니라 한국도 공기가 깨끗해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⑧ 코로나 19로 인한 네팔의 피해는?

- 한국보다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골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까지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한국과 다른 점은 1차 접종 후 3개월 정도 지나면 2차 접종을 받았는데, 네팔은 1차 접종 후에 6개월이 지나야 2차 접종을 하도록 해서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저도 네팔의 가족들과 통화할 때마다 꼭 백신 접종을 하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 ⑨ 교통이 발달하며 사람의 이동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와 질병의 확산도 빨라지고 있어 삶이 편리해짐과 동시에 위기도 커지고 있음.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많이 입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그런 문제가 있음.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잘못된 정보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함께 피해를 당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 ⑩ 사람들마다 기후 변화에 대해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느껴지지 않는 점도 있겠죠.
    - 네. 그런데 다만 매년 기온이 올라가서 여름에는 더 더워지는 건 느껴져요. 그리고 이상하게 겨울에는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현상의 원인이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 ⑪ 기후문제 홍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 정부가 좀 더 기후 문제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후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만들면 좋겠어요.
      - 우리 주변에 나무를 더 많이 심으면 좋겠어요.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니까요. 그런 노력을 통해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해요.

그룹	이주민	분야	결혼이주여성
나이	31	성별	여
인터뷰 일자	2022. 02. 20.	지역	아산

- ① 캄보디아는 태풍이 많이 오지 않나?  
○ 캄보디아에는 태풍 피해가 많지않고 비가 많이 옵니다.
- ② 캄보디아와 한국의 날씨차이가 크지 않나? 한국에서 어떻게 힘들었나?  
○ 겨울에 많이 추워서 힘들었다. 여름에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 캄보디아와 달리 숨이 막히고 더 더덥는 생각이 들어 힘들었음
- ③ 한국에 살면서 분리수거나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도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으나 쓰레기가 아주 많이 나오는 것 같음
- ④ 많은 쓰레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결국 이런 쓰레기들이 어떻게든 처리가 되어야 할텐데 말이죠.
- ⑤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장에도 가보면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쓰거든요.
- ⑥ 플라스틱을 쓰는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나?  
○ 일단 편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결국 그게 환경 오염을 일으키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플라스틱을 줄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⑦ 해수면 등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런 내용에 대해 저도 뉴스를 통해 여러번 들었어요.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점점 살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 ⑧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앞으로 해수면의 높이도 올라가면 어떤 문제와 피해가 생길까요?  
○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점점 더 적어질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 대책을 잘 세워야 하겠어요. 일단 바다 높이가 높아지지 않도록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 ⑨ 주변에 아시는 분들과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다만 뉴스를 볼 때 저는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있어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 ⑩ 우리 정부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이나 주차장을 많이 짓는 것보다는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함께 책임을 지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왕궁 앞에 가면 오래된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 나무들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지 않고 시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시만 발달하면 숲이 사라지니까요. 숲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룹	장애인	분야	지체장애
나이	44	성별	여
인터뷰 일자	2022. 02. 09.	지역	천안

① 본인 소개

- 천안에 산 지는 20년 조금 넘었어요.
- 결혼을 해서 천안에 오게 됐고 아이도 한 세 명 정도 작년까지만 해도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주차 단속을 했어요. 올해는 업무가 조금 바뀌어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사진을 찍었잖아요.
- 그러니까 저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 그런 걸 찾고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천안애(愛)놀자 라는 어플이 있는데 여기에 공유하는 거예요.

② 기후변화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인식하게 된 계기는?

- 처음에는 창문을 열고 나가도 이렇게 확 달아오르는 후덕함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미세먼지도 있잖아요. 또 그때만 해도 에어컨 없고 선풍기 하고 샤워하고 지낼 수 있었어요. 요즘에는 열대야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될뿐더러 미세먼지도 공기청정기를 살 정도니까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전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필요해지고 그런데 또 그런 가전제품이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 같아요.

③ 기후변화로 본인 혹은 주변 지인이 입은 피해나 생활에 생신 불편한 점이 있는지?

- 제가 작년에 주차 관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저랑 파트너랑 둘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관리를 하는데 그 친구는 손도 불편해요. 그러다보니 우산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산을 뒤에 펼쳐야 되는데 비가 온다거나 예상 할 수 있으면 우산을 달고 나와서 피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정말 해가 화창하게 떠는데 얼마 전이거든요 11월인가 12월에 우박같은 비가 왔어요. 그런거 당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 그리고 저희는 좀 장애가 있다보니까 날씨가 흐리거나 하면 몸에 통증이 오거든요 저희는 주로 날구지라고 하는데 몸이 쭈시거나 잠을 많이 잔다거나 약을 많이 복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래에 약 복용 횟수도 늘어났고 이게 기후변화와 조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그걸 느껴요.
- 겨울에는 목발도 미끄럽고 한발 내딛기도 힘들어요, 밖에 나가기도 몸 상태도 굳고 다리도 열고요, 여름에는 덥기는 하지만 근육이 굳거나 그런 건 덜하니까요..
- 여름에는 살을 햇빛에 노출 시키기 두려워졌다고 해야하나 제가 더운 여름에도 목 스카프를 하고 다녔어요, 자꾸 목에 물사마귀 같은게 생기고 그러던게 가리니까 좀 덜 생기더라고요. 여름에도 지금은 피부를 노출 시키기 어려워요.

- ④ 현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이런현상이 계속된다면 생활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 여름이나 겨울에도 밖에 나갈 수가 없는거죠 여름에 집 밖은 숨이 막힐거고 겨울도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될 거고 봄 가을도 사라질 거고 지구가 완전히 다 바뀔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 자연재해는 물난리가 나고 그렇지만 지금은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 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장애인분들의 기후재난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 도나 시에 요청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는지?
- 약자라면 약자에요 저희는 솔직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따로 교육하기 보다는 같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후에 관한 심각성도 같이 인지를 하고 대피만 생각해도 저희는 속수무책이거든요.
  - 중증 장애인들은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대책을 마련해야하고 그렇지만 이걸 장애인이 어떻게 한다고 될 수가 없어요.
  - 장애인에 대한 인식들의 개선도 필요하고 대책도 같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장 저희는 휠체어를 아무리 좋은걸 써도 장애인 경사로가 없으면 그걸 이용 할 수 없으니까요.

그룹	장애인	분야	청각
나이	33	성별	남
인터뷰 일자	2022. 02. 13.	지역	아산

① 본인 소개

- 아산에서 생활하면서 예산군수어통역센터에서 청각장애인통역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2019년 1월부터 대구달서구수어통역센터에서 2년 5개월 근무하고 2021년 5월부터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② 기후변화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인식하게 된 계기는?

- 저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친환경 관련 교육을 받아서 기후변화에 중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태생으로 2000년에 서울지역이 스모그가 굉장히 심하기로 유명했었고, 청정 서울을 만들려고 친환경정책을 펼쳤던 시기였기에 자연스레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③ 기후변화로 본인 혹은 주변 지인이 입은 피해나 생활에 생신 불편한 점이 있는지?

- 제가 청각장애인으로 살면서 느끼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후변화로 재난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농인이 상처를 받았기에 잊을 수 없는 재난상황은 2019년 강원도 산불, 2020년 코로나 1차 대유행 입니다.
- 2019년 강원도 산불하고 2020년 코로나 1차 대유행의 공통점은 장애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 입니다.
- 1차 강원산불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장애인들이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청각 장애인들은 소통에 어려움이 많이 있기에 불이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거대한 화염으로 바뀌어서 대피를 못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집 주변에 물을 뿌리고 지나가는 헬기에 살려달라고 울부지은 것과 강원도 수어통역사들이 보호장비 없이 농인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열심히 뛰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부랴부랴 정책을 내세웠는데 장애인들의 상처는 깊어갔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말씀이 있었는데... 2020년 코로나 1차 대유행에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 2020년 코로나가 조금씩 있었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방역하고 있다고 안심하라는 말이 있었는데.. 장애인들은 웬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2월 중순 대구지역에서 엄청난 속도로 코로나가 퍼지면서 장애인들이 힘겹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도 한 때 대구에 있었기에 아마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 처음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 정부에서 코로나 브리핑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겠

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속도가 조금...느릿했습니다.

- 생존의 위기를 느낀 대구농아인들이 적극적으로 대구시청에 민원을 올리고 수어통역사를 배치해달라고 항의하는 바람에 대구 코로나 대유행 이틀만에 수어통역이 세워졌습니다.
- 아쉽게도 수어통역은 선별진료소, 중증환자 격리소로 확대가 되지않아서 브리핑으로 한정되어 지원이 되었습니다.

④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라 우려되는 점은?

-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 청각장애인은 겉으로는 신체에 불편이 없어서 비장애인 그룹에는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인 그룹에는 신체 불편이 없어서 지원혜택에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장애인분들의 기후재난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 도나 시에 요청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는지?

- 비장애인 초중고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고 장애인 중심 통합교육이 필요합니다.
- 정부 정책 수립을 할 때는 복지전문가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하며 재난알리미 서비스는 문자로 구성되어있어 수어 도입이 필요합니다.
- 현재 농인들은 수어통역사를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수어 통역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생활이나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부족한게 실상이고요. 긴급재난 상황에서 농인들께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사의 보호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룹	장애인	분야	시각
나이	57	성별	남
인터뷰 일자	2022. 02. 11.	지역	천안

① 본인 소개

- 천안에서 28년째 살면서 안마업을 하고 있음

② 기후변화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인식하게 된 계기는?

- 최근에 바나나 파인애플이 제주도가 아닌 경주에서 제배하게 되었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굴을 좋아하는데 바다 수온상승으로 굴 양식이 망치게 되어 올한 굴값이 비싸게 되었다는 것을 뉴스로 들었어요. 실제로 식당에 가 보니 너무나 굴을 조금 주는 것을 보면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 착용 등 많은 것들이 있네요.
-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스트롱 사용 등 쓰레기 양산으로 탄소 배출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고요.

③ 기후변화로 본인 혹은 주변 지인이 입은 피해나 생활에 생신 불편한 점이 있는지?

- 아무래도 저희는 영업을 하는 장소고 사람을 직접 접하고 사람의 몸을 만지는 영업을 하다보니 아무래도 손님이 줄었죠 다행히 천안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는 더 큰 어떤 이렇다 할만한 어려움을 겪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폭우 피해 이런게 뉴스에도 나왔죠 천안같은 경우에 피해는 2~3년 전인가 병천이라는 지역에서 큰 폭우 피해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사실상 기후 변화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상하수도 이런 기관 시설이 좀 제대로 안되서 일어난 건지 그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④ 현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이런현상이 계속된다면 생활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 다 걱정되는거죠, 우선 바다 자원의 고갈, 제철 생선이 어획이 안되겠지요. 예를 들면 명태의 대량 수입, 에너지 생산 비용 상승으로 전기 요금이 앞으로 3배 정도 더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북금곰 이야기는 사실 한참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말씀 드렸지만 굴이 결국 바다의 수온이 높아져서 양식이 제대로 안됐다고 해요.
- 그런 경우도 결국은 기온의 문제인거고 탄소를 얼마나 배출 안하느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가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되면 땅이 그냥 갈라지고 이제 우리는 교회에 다니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이 끝에 다가갈수록 기아와 가뭄 현상이 심각하다고 해요. 또 산불도 기후변화에 한 표현 현상이잖아요?

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장애인분들의 기후재난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 도나 시에

요청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는지?

-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충청남도에는 없어요. 그 조례를 충청남도에서 제정을 했으면 합니다.
- 제도 마련과 예산 확보를 통한 시민운동, 이 두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후 환경 관련 조례마련이 필요하고 조례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이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거죠
- 시민운동으로도 스프레이 안 쓰기, 일회용 부탄가스 안쓰기,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 레인지 사용 권장,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 운동, 자원 재활용을 위한 캔 모으기 포인트 적립,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 포장재 덜 사용하기, 비닐 덜 사용하기, 친 환경 비닐 사용 보급 운동, 친환경 시민 단체 지원, 친 환경 소비자 생활 운동 장려, 그린 카드 갖기 운동 일명 충남 그린 카드 포인트 적립 및 이체 기능 포함 등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 재난관련 문자나 알리미에 대해서 저희는 음성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뜨더라고요 아직까지 큰 거 받은거는 없는데 '폭설에 주의하세요' '외출을 삼가하세요' 이런 문자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그런 큰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장애 노인분들요. 갑자기 침수가 일어난다거나 폭우로 인한 경우에 장애인들 같은 경우 당장 대처할 방법은 없겠네요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될 방법도 아직까지 떠오르는 것도 없네요.

그룹	청소년	분야	학교 밖 청소년
나이	17	성별	여성
인터뷰 일자	2022. 02. 24.	지역	천안

① 본인 소개

○ 학교 밖 청소년으로 1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② 주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 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얼마 전까지 세 달 정도는 여기 밑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하기도 했어요.

③ 센터에 오지 않을 때는 주로 어디에 있나요?

○ 주로 집에 있어요.

④ 처음에 섭외요청에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일단은 제가 사실 이런 부분에 좀 무지하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⑤ 혹시 기후변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 많이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온도변화랑 미세먼지 정도. 자세하게는 잘 접할 일이 없어서 모르고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심각하다는 얘기 정도.

⑥ 주로 어디에서 많이 들었나?

○ 주로 TV에서 본 것 같아요. 북극곰 이야기, 또 기사로 얼마전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 뭐 그런 기사도 올라오고 해서 그런걸 보고 알고 있었어요.

⑦ 봄이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지며, 여름에는 너무 덥고 장마와 태풍이 빈번해지고, 이러한 기후변화를 실제로 느꼈던 적이 있나요?

○ 날씨가 들쭉날쭉 한 걸 느끼긴 했는데..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동안에 비가 오다가 갑자기 눈이 내리고 또 따뜻했다가 했던 적이 있어요. 아침에 따뜻하게 입고 나갔다가 저녁 때 너무 추워서 고생을 했었어요.

⑧ 혹시 이런 기후변화 문제로 불편했거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지?

○ 예전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다녔었는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기숙사에 물이 차올라

서 옷까지 다 젖었을 때가 있었어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잠깐 산책을 갔다 와도 몸에 먼지가 달라붙은 것 같은 느낌이 심해서 바로 씻어야 하고...

⑨ 주로 집에 있는다고 했는데, 여름에 날씨가 많이 덥거나 할 땐 어떻게 하는지?

- 그냥 에어컨 키고 있음
- 26도에 맞춰서 한 4시간... 엄마가 더위를 잘 안타세요. 엄마 말을 들어야해서...

⑩ 지금은 일상에서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낀다고는 했지만, 혹시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계속 진행 된다면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 아무래도, 벌레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더 위험해질거고.. 아프거나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봄, 가을이 짧아지니까 전기세나 가스비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⑪ 본인 및 다른 청소년과 인터뷰 했을때 기후변화를 영상으로 접했다고 한게 인상 깊었다. 청소년들에게 기후변화나 그 위기에 대해 홍보 하려면 어떤 채널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지?

- 유튜브도 보고.. 저는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을 많이 해서...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게 미니웹툰 같은 것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알고리즘으로 뜨면 자연스럽게 볼 수도 있어요.

⑫ 기후변화를 조금 늦추거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 일단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오염에 큰 문제라고 알고 있어서... 저희집은 요즘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가까운 가게 갈 때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다녀요.

그룹	청소년	분야	학생
나이	17	성별	여성
인터뷰 일자	2022. 01. 26.	지역	천안

① 본인 소개

-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천안에 이사 와서 지금 한 3년 정도 됐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② 환경을 잡아java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들었음. 어떤 활동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천안YMCA에서 환경이랑 코딩이랑 해서 활동을 했었고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고등학교 선배들이랑 같이 했는데, 선배들은 코딩을 하고 싶어 했고 저랑 제 친구들은 환경 관련해서 하고 싶었어서 그럼 환경과 코딩을 결합해보자 해서 그때 마스크 끈 자르는 기계를 만들었었어요. 지금은 저랑 제 친구들 세 명이 있는 온새미로 라고, 천연비누 같은 것도 만들고 환경영화보고 토론도 하고, 또 앞으로는 쓰레기 줍기 같은 것도 할 계획이에요. 로컬푸드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제로웨이스트숍 방문하기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③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 있는지?

- 네 저는 관심이 있어서 계속 이런 거 저런 거 다 찾아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기사 뜨면 확인해보고 해요. 그런데 사실 저희 3학년 때 반 친구들만 봐도 여름엔 에어컨 18도 해놓고 춥다고 담요 덮고 있고 겨울엔 난방 28도로 맞춰놓고서는 덥다고 창문 열고 있고 그러거든요. 제 친구들 몇 명, 정말 관심 있는 친구들 빼고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기후변화는 저희가 솔직히 크게 변한 걸 못 느끼고 살잖아요. 엄청 많이 변했다고 얘기들은 하지만, 다른 나라는 홍수가 났네 산불이 났네 하는데 저도 학교 다니면서 크게 불편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여름에 덥구나 에어컨이나 틀지 이러니까... 저희가 직접 크게 느끼지 못하니까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④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 맨 처음엔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가 알려주기도 했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때문에 등교거부하고 캠페인 했던 영상이었어요. 그걸 보고 이렇게 까지나 문제가 심각하고, (다른 청소년들은)이런 목표까지 갖고 있는데 난 관심도 안 가졌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⑤ 학교에서 수업시간이나 선생님들께 기후변화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는지?

- 저는 들은 것 같은데 솔직히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요. 아침시간에 영상 같은거 보여줬던 것

같아요.

- ⑥ 학교다니면서 기후변화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겪었던 적은 없다고 했는데, 다른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인지?
- 여름에 정말 덥긴 했죠. 그리고 미세먼지 얘기 나오는 건 자주 들어요. 또 해외뉴스기사 같은 데에 산불 났을 때. 코로나 퍼지기 전에도 학교에서 미세먼지 심하다고 마스크 써라, 밖에 나가서 마라 한적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진짜 심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칠판에 오늘 미세먼지 심하다고 써주시고 오늘은 운동장 나가지 말라고 얘기했던 기억도 나요. 또 중학교 1학년 때 미세먼지 너무 심해서 밖에서 체육수업 못하는데 강당은 다른 반이 쓰니까 교실에서 수업한다고 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 못했던 적은 자주 있었어요.
- ⑦ 만약에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함.
- 얼마 안 남은 거 같아요. 지금 어른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공기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어른들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했던 거를 저희들이 컸을 때 미래에는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 받아들이고 누리지 못할 테니까. 어른들이 누렸던 건 그대로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코로나 끝나더라도 마스크는 계속 쓰게 될 것 같기도 해요. 새로운 바이러스는 계속 나타날 것 같고, 병하가 계속 녹고 있잖아요. 병하 안에 우리가 모르는 오래 전 미생물들이나 바이러스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옛날에 친구들이랑 나무도 없어지고 공기도 나빠지고, 야 우리 이러다가 다 방독면 쓰고 다녀야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제가 중국에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아 그게 다 현실이 됐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이건 기후변화랑 좀 다른 느낌일수도 있지만, 동물들이 멸종되고 있는게 기후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내 뒤 세대들을 동물을 못보고 살수도 있겠어요. 홀로그램으로만 보게 될 수도...
- ⑧ 혹시 이런 기후변화를 조금 늦추거나 피해를 덜 받을 수 있기 위해 필요한건 뭐가 있을 것 같은지?
- 사람들이 텀블러 쓰고 장바구니 든다고 나아지지 않을 것 같고요. 탄소중립 먼저 해야겠죠. 친환경에너지로 다 바꾸고 전기차 쓰고 그러면 아주 조금은 지구가 덜 아파하지 않을까요? 사실 사람들 행동으로, 솔직히 텀블러 쓴다고 지구가 나아지진 않을 것 같지만, 그런 걸 쓴다는 건 지금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나라도 바뀌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모이면 정책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환경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룹	주거취약계층	분야	-
나이	62	성별	남
인터뷰 일자	2022. 02. 14.	지역	천안

① 기후변화, 기후위기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지? 그렇다면 주된 경로는 무엇인지?

○ TV를 통해서 주로 듣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도 듣게 되는거 같습니다.

② 기후변화를 인식하거나 문제라고 느낀 적이 있는지

○ 올겨울에도 느끼게 되는 거 같아요. 눈이 올해 두 번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눈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따뜻해서 어쩌다 추우면 너무 춥다고들 하는데 전에 비하면 사실 추운 것도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여름이 너무 길어졌어요. 길어지기도 했고 너무 덥습니다.

③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 집이 가건물이예요 지붕은 양철이라 여름엔 더 덥고 겨울엔 더 춥지요. 그래도 전에는 시골이라 여름에 문을 열어 놓으면 선선한 바람이 들어와서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요즘 여름은 문을 열지 못하겠어요. 너무 더워서 그냥 닫고 에어컨을 켜야 합니다.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질 못하겠어요.

④ 기후변화로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는지? 주변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는지?

○ 예전엔 여름에 더우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서 에어컨을 틀고 지냈어요.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로 집에 있어야 하지요. 시골집들 중에 아직도 에어컨이 없는 집들이 있어요. 보통 나이든 어른신들이 사는 집들인데 선풍기로 더운 여름을 나야 해서 힘들어하시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⑤ 예전에 비하여 여름이나 겨울 연료비가 상승했는지?

○ 겨울은 따뜻해지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난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는 아니예요. 등유값이 너무 올라서 예전보다 난방비도 많이 들어요. 여름엔 에어컨을 계속 켜야 해서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저희집은 선풍기가 3대가 있어요. 방에 하나씩 있고 거실에도 하나가 있지요. 에어컨은 거실에만 있어서 폭염이 오면 방에서 자는게 힘들 정도라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놓고 자야해요 그렇다보니 전기료가 많이 나와 부담이 됩니다.

⑥ 기후변화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을 방법을 알고 있는지? 또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폭염을 피해 있으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

쉬기에는 좀 그렇고 최근에 폭우로 하천이 넘칠뻔해서 하천 주변 집들을 피신 가도록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⑦ 기후변화가 계속될 때 본인이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

○ 저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고 고혈압이 있습니다. 주로 밖에서 일해서 여름에 무더위가 계속되거나 더 더워진다면 건강이 가장 걱정됩니다. 에어컨이나 가전제품이 오래되다 보니 여름철 전기료도 걱정됩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지붕을 바꾸고 싶은데 올해는 어려울 거 같고 올여름 나는 게 지금부터 걱정되네요.

⑧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 냉난방비 지원을 더 많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시골은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적고 해도 그리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지 않다 보니 냉난방비 지출이 부담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보면 선풍기를 지원해주는 건 종종 보는데, 선풍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해주거나 그도 안되는 집들은 지붕을 바꿔준다거나, 창문을 이중창으로 바꿔준다거나 단열공사를 해준다거나 해서 더위나 추위로부터 보호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룹	주거취약계층	분야	-
나이	56	성별	여
인터뷰 일자	2022. 02. 14.	지역	천안

- ① 기후변화, 기후위기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지? 그렇다면 주된 경로는 무엇인지?
- TV나 매스컴을 통해 듣게 되고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 거래처나 가게에 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듣게 됩니다.
- ② 기후변화를 인식하거나 문제라고 느낀 적이 있는지
- 겨울이 정말 짧아진 거 같아요. 봄날같기도 해요. 삼한사온이라는 말은 이제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하다 보니 재료 구입할 때 느낄때도 있어요. 예전엔 오징어가 이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이것도 기후변화때문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집이 오래된 단독주택인데 겨울이 춥지 않지만 어쩌다 추워지면 정말 춥게 느껴져요. 여름은 정말 덥고요. 전세임대로 오래 살았는데 확실히 여름을 나는게 힘들어졌어요 전보다.
- ③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 여름이 너무 덥다 보니 문을 못 열고 있겠어요. 낮에 집에 없고 밤에 들어가도 더우니 에어컨 켜고 그냥 잠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가 곰팡이도 집에 더 많아졌고 도배지가 벗겨진 적도 있어요. 제일 큰 건 전기료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 ④ 기후변화로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는지? 주변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는지?
- 여름을 나는게 고통스러워졌어요. 식당에서 일을 하는것도 점점 힘들어요 더위에 음식까지 해야하니 더 그런거 같아요. 보통 출퇴근을 할 때 걸어다니는데 여름엔 아침 저녁 걷는 것도 힘듭니다. 겨울은 추울 땐 엄청 춥고 안 추우면 겨울인가 싶고 중간이 없는거 같아요. 또 봄, 가을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러다 여름 끝나고 바로 겨울이 오는건 아닐까 싶어요.
- ⑤ 예전에 비하여 여름이나 겨울 연료비가 상승했는지?
- 늘어났어요. 여름에 에어컨을 켜지 않을 수 없다 보니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집이 오래돼서 단열이 안되다 보니 겨울철 난방비도 부담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 ⑥ 기후변화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을 방법을 알고 있는지? 또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 특별히 없습니다. 주변이 다 재개발 지역이라 어수선해서 더 그런거 같아요. 저도 곧 이사를 해야하는데 떨어져 사는 자식들한테 도움을 청해야할까요?

⑦ 기후변화가 계속될 때 본인이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

○ 지금 집에서 나가야해서 어떤 집을 구하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경제 상황으로는 월세나 또 오래된 집을 구할 수밖에 없을거 같아요. 냉난방비 부담이 제일 크겠죠. 그리고 직장 출퇴근도 걱정이예요. 또 식당에서 쓰는 재료비 가격도 걱정입니다. 전갈지가 않아요. 예전에 흔했던게 비싸지고 있어요.

⑧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 제가 최근까지 정부지원을 받다가 탈락을 했어요. 아이들이 커서 그런거 같아요. 그렇다보니 아무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정부나 천안시가 냉난방비 지원을 더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전기료 감면을 더 확대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세가 없다 보니 집주인들이 집수리를 안 해주는 일이 많아요. 올거면 오고 말거면 마라는 식이지요 월세도 마찬가지예요. 저렴한 월세는 배짱이예요. 어려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싼 곳을 찾게 되는데 이런 곳들에 단열이나 집수리 지원을 해주면 좋을거 같아요.

그룹	사회복지	분야	노인요양시설
나이	60	성별	여
인터뷰 일자	2022. 02. 12.	지역	당진

① 본인 소개

- 당진시립노인요양원에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어려서는 당진 옆 서산시 운산면에서 살다가 당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9년에 서울로 올라가 대학 졸업하고 스님이 돼서 지내다가 1995년에 당진에 내려와 스님생활하고 있죠.

② 당진시립노인요양원 소개

- 당진시립노인요양원은 국비50%, 도비25%, 시비25%로 당진시에서 지어 2010년 9월 개원했어요.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어르신은 100명이고 70명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개원할 때부터 사회복지법인 수덕이 위탁운영하고 있어요.

③ 시설 운영시 어려운 점은?

- 시설을 운영하는 예산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80%와 본인부담 20%인데요.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높여야 하는 게 가장 어려움 점이에요. 100명의 어르신을 돌보는데 70명의 직원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요. 서비스의 질을 더 좋게 하려면 근무하는 직원이 더 필요한데 재정 마련이 어렵죠.

④ 기후변화나 기후위기에 대해 들어본적 있는지? 있다면 그 경로는?

- 기후변화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은 주로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봤어요. 제가 스님생활 하면서 불교환경연대 활동도 해서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도 많았고요.

⑤ 기후변화를 체감한 적이 있는지? 어릴때에 비해 어느정도 변화했다고 느끼는지?

- 기후변화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계절이에요. 계절이 봄 가을이 점점 없어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졌어요. 특히 여름이 많이 길어졌어요. 어릴때는 3월 초에도 살 에이게 추웠는데.
- 예전의 식물들도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산에 사니까 더 느끼는데 산에 가면 어릴 때 흔하게 보던 온갖 나물, 버섯, 도라지 등이 다 없어졌어요. 식물은 이동을 할 수 없으니까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변하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인간도 자연의 일부인데. 지금도 체감을 못할 뿐이지 기후는 계속 변하고 있다고 봐요.

⑥ 기후변화를 느끼신다면 기후변화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 기후문제는 쓰레기, 에너지 문제예요. 기후문제 해결하려면 화력발전을 빨리 이용하지 않아야

죠. 충남에는 석탄화력, 현대제철 처럼 석탄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 또 우리나라는 전기를 너무 많이 써요. 너무 화려하게 사용해요. 불필요한 곳에도 불야성처럼 새벽까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요. 쓰레기 문제도 심각해요. 배달음식 과대포장 쓰레기 등도 처리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일으킨다고 봐요.

⑦ 본인이 생활하거나 일하는데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지?

- 기후변화는 공기오염과도 관련 있어요. 석탄을 많이 사용해서 공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산속에 살다보니 더 민감하게 느껴요.
- 요양원은 실내온도를 적정온도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더위나 추위가 오래 지속되면 환기를 자주하기가 어렵고 에너지 소비도 엄청 늘어나요.

⑧ 기후변화로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 기후변화로 더위나 추위가 계속되면 몸이 먼저 반응해요. 요양원에 모시고 있는 분들이 날씨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돌발행동, 난폭한 행동이 잦아지고 실수로 넘어지는 등 사고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럼 병원 이송도 많아지고 그만큼 직원도 더 필요해져요.
-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모가 늘어나게 되죠. 요양원 시설을 모두 가동하면 한달에 전기요금만 이천만원도 부족해요. 지금은 이런저런 에너지 절감 노력을 해서 한달에 육칠백만원 정도 되는데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에너지 소모가 훨씬 심해서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죠.

⑨ 기후변화 대응하는 대책이 있다면?

- 요양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적정한 실내온도와 청정한 공기를 유지하는 것이죠.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 요양원은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더운 여름에는 쿨섬유로 옷감 재질을 바꾸고 스프링클러도 설치해 돌리고 있죠. 전등도 모두 LED로 교체했고 프로그램 진행 공간을 분리해 불필요한 공간은 차단하고 꼭 필요한 공간만 계속 냉난방을 유지해요. 지금도 에너지 소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더 다양한 에너지 절약 대책이 필요하죠.
- 많은 인원이 모여 생활하는 요양원은 가뭄때 물 부족에 대비한 대책도 필요해요. 물탱크를 키우는 것보다 자체적인 물 확보 방안이 필요해요.

⑩ 기후변화 대응 바라는 것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 요양원 같은 시설에 야외 분수대와 실내 벽면에 화초나 채소를 키우는 수경재배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실내 수경재배시설은 실내 공기 관리, 에너지 절감에도 효과가 있고 입소하신 분들의 정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야외 분수대는 여름철 폭염에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시설관리 비용도 증가하고 필요한 직원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대비한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죠.
- 당장은 감염병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지만 백년 후, 천년 후를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력발전을 빨리 없애고 일회용품 사용을 중단시켜 쓰레기를 줄여야 해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룹	사회복지	분야	방문요양시설
나이	67	성별	여
인터뷰 일자	2022. 02. 12.	지역	당진

① 본인 소개

- 파킨슨병 또는 치매 등으로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가 식사준비, 세탁 등 생활을 도와드리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방문 요양은 1집 당 3시간씩 하루에 2집 정도 돌봐드리고 있고 방문요양은 2012년에 시작해 10년 됐어요.
- 고향은 당진이고 결혼 후 공무원으로 일하는 남편과 도시에서 생활하다 남편이 퇴직한 후 시어머나가 계신 당진으로 21년 전에 내려왔어요.

② 방문요양 일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일하는 자체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다만 가끔 오는 보호자분들이 상황을 모르고 뭐라하는 경우 보호자들과 갈등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방문요양의 본래 목적과 상관이 없는 농사일을 도와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 거절하기도 곤란하고 어려워요.
- 동료 중에는 방문 요양 과정에서 농담처럼 하면서 성적인 부적절한 언행으로 곤란한 상황을 경험한 경우도 있고요.

③ 기후변화나 기후위기에 대해 들어본적 있는지? 있다면 그 경로는?

- 기후변화라는 말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들어봤는데 크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 그냥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사용해서 기후변화가 오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쓰레기를 그냥 태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러 쓰레기봉투를 사다 드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냥 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④ 어떤 점에서 기후가 변했다고 느끼시는지?

- 제가 어릴 때는 여름에 덥다고 해도 기분 나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여름 더위가 에어컨을 틀어도 기분 나쁘게 느껴져요. 그리고 여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 요즘 겨울은 보기에 춥지 않은 것 같은데 찬바람이 무척 세게 느껴지고 더 이상 삼한사온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기후변화라고 생각돼요.

⑤ 무엇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

- 왜 기후가 변화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많아지고 매연도 많아지고 공장도

많아지고 공기가 너무 나빠졌어요. 그런 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전에는 나무를 때서 난방을 했는데 이제 기름을 때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주었겠지 싶고요.

⑥ 기후변화로 불편한 점은 무엇이고 하시는 일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 더 덥거나 더 추워지면 아무래도 전기 소비가 많아지고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장마가 길어지면 모기 같은 해충도 많아지고 겨울에 너무 추워지면 수도관 동파 같은 생활에 불편이 많아지겠지요.
- 일하러 다닐 때 승용차로 다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 눈이 더 많이 내리거나 폭우가 계속되면 일하러 다니기 힘들어 지겠지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어르신들이 짜증을 내거나 예민하게 대해요. 그만큼 일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 제가 방문하는 어르신들은 80세 이상 되는 분들이고 혼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주중에 매일 방문하는데 기후변화가 심해져서 갑자기 며칠간 방문하지 못하면 상황이 벌어지면 어르신들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지겠지요.

⑦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어르신들은 아끼는 게 습관이 돼서 전기료를 아꼈려고 덥거나 추워도 에어컨이나 보일러를 잘 안틀어요. 어르신들이 마음 편하게 냉난방을 사용할 수 있게 전기요금 누진세를 낮춰주면 좋겠어요.
- 어르신들은 연세가 있으니까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데 의료비 지원도 더 필요하고요. 버스를 잘 타지 못하시고 일이 있으면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차를 얻어 타거나 택시를 타요.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이동 대책으로 택시 지원 정책을 해줬으면 해요.
-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장시간 방문 요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해요. 긴급한 상황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을 취할 방법도 필요해요.

그룹	노인	분야	-
나이	71	성별	여
인터뷰 일자	2022. 01. 26.	지역	당진

① 본인 소개

- 서산 성연면에서 태어났고, 지금 이곳으로 20살에 시집와서 5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밭농사 1,500평, 논농사 1,500평을 짓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 한 철은 부업으로 30년째 한과 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날 일로 계산하니까 일 년에 40일 정도 다니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는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 농사짓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식들한테 의존하게 됩니다만 그나마 자식들이 주말마다 도와주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② '기후변화'라는 말을 들어보았나? 어떻게 체감하고 있나?

- 뉴스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식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로 많이 들었습니다.
- 예전에는 '기온이 이상하다'라는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새 들어 '이상 고온' 현상을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발이 빠지도록 눈이 왔는데 지금은 눈이 안 옵니다. 여름에는 장마가 길어졌습니다. 장마가 길어지면서 농사를 짓는 저로서는 농작물 뿌리가 썩는 현상이 나타나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옛말에 '가물 끝은 있어도 장마 끝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장마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③ 폭염, 홍수, 태풍 등 기후변화 현상 중 제일 힘들게 느끼는 것은?

- 장마가 농작물의 피해를 가져온다면, 폭염은 노인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가져옵니다. 예전에는 여름 삼복 더위에도 농촌에서는 그늘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견딜 만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폭염은 농촌에서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침부터 더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밤에도 더워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였으니까요. 그 이후로 집에 에어컨을 놓게 되었습니다. 점점 폭염의 일수가 증가하고 그 강도가 높아져 밭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저로서는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순간 어질어질한 적도 있었지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가급적 식전과 해지기 전에 밭 일을 하고 한낮은 피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계속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밭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④ 감염병의 유행과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도 점점 증가할 거로 예측되고요. 코로나 19가 어르신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 여태껏 살았지만 이렇게 공포스러운 전염병을 겪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은 예방접종을 3차까지 마친 상태이고, 치료약도 개발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당뇨' 지병을 갖고 있어 아직도 불안

합니다. 처음에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다 살았구나'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쓰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만 처음에는 불편해서 안 쓰고 다녀 늘 자식들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어린 손주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도 걱정해야 했고요.

- 일상의 삶에도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장 보러 나오기도 꺼려지고 약 타러 나오기도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정보를 많이 얻어 '이런 전염병이구나' 합니다만 처음에 정보가 없었을 때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의심하게 만들고 갈라놓게 만드는 몹쓸 병이었습니다. 자식들 보는 횡수도 뜸해지고, 밖에서 외식도 어려웠습니다. 친지들 보기는 더더구나 어려웠고요. 특히 친척 상 당했을 때 조문을 못 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립니다.

⑤ 건강은 어떠신가요?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는지?

- 당뇨병을 앓은 지 20년 정도 됐습니다. 정기적으로 약을 타서 먹습니다.
- 읍내 병원까지는 시내 버스로 40분 정도 걸립니다. 2시간에 한 대씩 버스가 있어 아직까지는 다리가 크게 불편하지 않아 버스를 이용하여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 발농사를 많이 지어 관절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농촌에서 농사짓는 여성들은 모두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국에서 관절 약을 사가는 중입니다.
- 그 외 큰 병원에 가게 될 일은 자식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혼자 살다 보니 점점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안하고 나라에서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대책이 없는 것인지 생각 듭니다. 혼자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의료서비스가 잘 되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 문제는 또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⑥ 지금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고,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는가?

- 저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작물이 자식같이 느껴집니다.
- 한 여름 폭염에도 밭으로 나가 일을 하는 것은 다 때가 있어 수확철을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수확해서 농가소득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일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 병충해 피해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 보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이런 인터뷰도 노인들의 의견을 듣고,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책을 만들 때 당사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노인들의 삶에도 농민들의 삶에도 걱정이 없도록 좋은 정책 만들어 주세요.

그룹	노인	분야	-
나이	84	성별	남
인터뷰 일자	2022. 02. 08.	지역	당진

① 본인 소개

- 저는 이곳 대호지면에서 태어나고 자라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안식구와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살던 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습니다. 1970년대까지 대호지면 일대는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와 있는 만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1984년 대호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대규모 간척 사업이 시작됐죠. 30대는 바다가 막히기 전까지 어선을 가지고 어업을 8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밭농사, 논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구와 같이 짓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주 와서 도와주어서 할 수 있습니다.

② '기후변화'라는 말을 들어보았나? 어떻게 체감하고 있나?

-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 않을까 합니다. 농작물의 생육 환경에 가장 직접적인 것이 날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다른 곳보다는 제가 사는 고장은 가물어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용수가 있고,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 재해가 다른 시도보다는 적은 곳입니다. 저 어렸을 적에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했었는데 요즘에는 사계절의 경계가 무너졌다고 해야 할까요. 올 가을에는 이상고온이 계속되면서 비가 많이 내려 다습했죠. 해마다 배추를 심어 김장을 해 먹습니다만 올해는 배추 밑동이 무르면서 썩어 수확을 못했습니다. 이웃에게 얻어서 김장할 수 밖에 없었죠.

③ 감염병의 유행과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도 점점 증가할 거로 예측되고요. 코로나 19가 어르신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 제가 장티푸스도 겪어 봤지만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제 삶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부든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든 농한철 놀이도 같이하고 식사도 하면서 어우렁더우렁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끊어 놓는 아주 나쁜 전염병입니다. 제가 여태 살아오면서 가장 나쁜 것을 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물론 가족들, 친지들과의 왕래도 뜸하고 자주 볼 수 없어서 힘듭니다. 명절, 생일날 자녀들과 제대로 모임 한번 못했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끝나길 바랍니다.

④ 건강은 어떠신가요?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는지?

- 저는 비교적 건강한 편입니다. 작년엔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식구는 관

절이 안 좋아 가끔 읍내까지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옵니다. 저희 안식구는 발일을 많이 해 관절이 약합니다만 저는 오토바이로 이동할 수 있을 만큼 다리도 괜찮습니다. 다만 혈압이 높아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제 안식구도 혈압이 높아서 같이 제 오토바이 타고 면 소재지 보건소까지 가서 약을 타 옵니다.

- 읍내까지는 그 전에 마을에서 항상 주민들을 대기하고 있던 '행복버스'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부르면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행복버스'가 오전에만 있고 오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토, 일, 공휴일에는 시내버스가 오전, 오후 2번 운행합니다. 제가 운전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렵습니다. 그 외에는 병원 갈 일이 많지 않습니다만 큰 병원 진료 볼 때는 자녀들이 와서 같이 갑니다.

⑤ 지금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고,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는가?

- 제가 마을 노인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살피는 일도 예전엔 경로당으로 오시면 한 번에 살필 수 있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식사도 챙겨 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지금은 일일이 찾아뵙고 해야 하는데 또 코로나로 찾아뵙는 것이 어떨 땐 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선뜻 나서지지가 않습니다. 자식들이 하겠지 하고 미루기도 하고요. 혼자 사시는 노인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정책을 잘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점점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마을에서만도 제가 젊은 측에 속합니다. 그래서 노인회장도 맡고 있습니다만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의료, 복지 서비스가 촘촘히 세워졌으면 합니다.
- 또 제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업인으로 정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입니다.

그룹	문화예술	분야	공연예술
나이	56	성별	남
인터뷰 일자	2022. 01. 28.	지역	아산

① 본인 소개

- 탈춤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천안에서 사회 문화 예술 분야 활동을 하며, 전통연희패 신바람이라는 단체 활동을 오래도록 해 왔습니다. 주로 마당극, 탈춤, 전통타악 분야에서 활동하다 40대 이후 풍물분야 강사 활동을 주로 하면서 생계활동을 하며, 예술활동을 지속해 왔고, 천안시립 풍물단에 비정규직 비상임으로 활동하다 몸을 쓰는 분야이다 보니 점 점 나이 들어가면서 예술단에 남아 있는 것이 버겁고 미안한 생각이 들어 몇 년 전 사직하고 학생들이나 자치센터에서 풍물(사물놀이) 강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② 기후위기와 공연예술분야 관련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 가장 최근 현재도 겪고 있는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이야기 할 수 있겠는데, 코로나19가 역학적으로 정확하게 기후위기와 연관성이 100%로 있는지 모르겠으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공연 예술 분야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직격탄을 제일 먼저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예술강사 활동으로 생업을 이어가며 예술활동을 하는 이들이 대부분인데 강사로 출강할 수 있는 곳들도 코로나로 인해 휴강을 하거나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에 관련한 어떠한 피해 보상이나 대책은 없었습니다.

③ 코로나 19 전·후 예술인 창작활동 소득, 그 외 소득, 생업관련 소득에 대한 기초 조사결과 50%~80%가까이 소득이 줄었고, 특히 창작활동 소득은 코로나 전에도 월 평균이 너무 적는데 코로나 19 이후 월평균 10만원 선이었던것으로 조사됨. 강의소득도 반 이상 줄었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 당장에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들이 이어졌고, 그 와 관련한 업종(음향, 광고 기획사 등)들 또한 타격이 컸고, 소상공인 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예술인들의 상황은 코로나 전·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이들은 1%나 될까 싶은데, 재산이 많거나, 사업이나 여타의 다른 직종의 소득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술 활동 자체가 불가능 한게 현실이다. 아르바이트든, 기간제든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작품 하나 만들기 힘든 상황이고, 그 일을 자신의 업으로 해오며 버티며 있는 상황들입니다.

④ 코로나 19 상황을 겪으면서 피해(?)를 본 예술인들의 어려움과 그에 대한 보완책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해주시면 함

- 코로나 시국 강의 행사 취소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정도 소득보

전을 해주는 방법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 어려운 방법은 아닌 듯합니다. 피해가 큰 이들. 그 피해를 감당하기 더 어려운 이들 우선으로 예산을 책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리랜서라는 직업 비정기적이고 비효율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예술 활동을 하는 이들이 특히 공연예술분야다. 직접 대면을 해야하고 관객이 공연의 필수 요소인데 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연장 규모에 맞추어 거리두기를 하기도 했으나 초창기 공연 자체가 불가능했고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공연장 규모가 커야 그나마 관람 가능이고 야외 집회 행사 등은 대규모 공연장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50명, 100명으로 인원제한을 두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야외에서 거리두고 더 많은 인원이 가능하지 않나? 위험도를 구지 따지자면... 그 기준이 모호하고 뭔가 앞. 뒤 맞지 않는 듯하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기준도 좀 더 합리적으로 매뉴얼화 하고 마련하는게 좋을 듯하다. 공연자들에게 예술인들에게 먼저 백신을 접종시키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⑤ 코로나 19 시기를 생각하며 비대면으로라도 진행되는 공연이 도움이 되었는지? 다시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대안이 될만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영상, 방송 송출은 공연예술과 다른 예술분야이기 그에 따른 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영상, 방송분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호황이었고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나면 그들 또한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연.행사 진행하는데 영상, 방송 송출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공연예술인들의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비대면이 대안이 될 순 없고, 코로나 시기와 같은 상황이 또 다시 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실제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부분. 방송, 영상장비와 인력을 지원해주면서 제대로 된 영상과 방송이라도 되면 다행이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다.기본적인 생활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전국민 4대보험 적용과 함께 확대 되어야합니다. 예술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복지이고 그게 취약 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 아닐까 싶습니다.
- 예술의 공공성. 공공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예술인들의 노동, 활동이 공공을 위한 노동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노력. 그리고 그걸 향유하며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모든 국민(시민?)들이 인식하고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예술인들의 생존이 가능하고 예술활동의 지속이 가능하다. 어찌 보면 기후 위기로 사라지는 취약한 (생물)종과 같다. 기후난민. 기후위기에 취약한 빈민의 또 다른 계층일 수 있다.

⑥ 기후위기에 대한 개인적 인식 정도와 노력을 예술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 예술인으로 특별히 더 무엇을 이라기보다 생활인으로 시민으로 생활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 정도를 해 왔다. 다른 이야기지만 열심히 분리 수거하면 뭐하나? 내 놓으면 시에서 한꺼번에 뒤섞어 가지고 가버린다. 지자체에서 조차 작은 실천에 대한 노력이 아쉽다. 예술인으로 지속

하기 위한 노력부터 살아 남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예술 작품 속에 내용을 담는 노력들. 그리고 인식확대를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고, 개인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 하지만 이걸 어찌 보면 개발에 의한 이익을 크게 보는 기업. 그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말 해야 할까?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룹	문화예술	분야	전시(시각디자인)
나이	40, 41	성별	남, 남
인터뷰 일자	2022. 01. 26.	지역	아산, 서산

① 본인 소개

○ 저는 다원이라고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아요. 영상, 회화 설치 사진 요새는 집중하는 분야가 판화하고 새활용으로 하는 작품들 고민하고 있죠. 은 세중에 살고 활동은 대전. 세종.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사진. 영상을 주로 하다가 30대 후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판화 새활용 디자인등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작업하고 있는데 예로 버려지는 페트병등으로 생활용품을 다시 만들거나 설치미술 등 작업을 하고 있다.

○ 저는 시각예술 하나죠? 서양화(유화)

② 문화예술인들 또한 기후위기의 취약계층으로, 기후 위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상 뿐 아니라 창작 조건과 활동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세요.

○ 예전에 회화 할 때 물감. 특히 조형 할 때 하는 친구들 보면 frp를 쓰는데, 길에 가다 보면 도로 옆에 조형물들 공주 가면 곰 조형물 있고..두드리면 통통 소리 나는 것들 그게 환경파괴에 직결되죠. 예술작품이라고 하지만 쓰레기를 만드는 거죠. 땅 속에 묻었을 때 이게 나누어 지는데도 조건을 들으면 깜놀해요. 지열 60도 습도70%가 조건이에요. 인간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환경에는 최악인 거 같아요. 예술지원을 늘린다. 더 많은 작품을 만든다 좀 회의감이 들 지경이죠. 유화재료도 냄새도 너무 고약하고 분해도 되지 않을 듯 해요.

○ 기후위기와 예술분야라고 연관성을 말하자면 코로나19 상황을 말 할 순 있는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탄소를 줄이자라고 말하며 예술인들의 직접적 연관성과 피해를 말하자면 글씨 잘 모르겠네요.

○ 수해를 입거나 그런건 1차원적 인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와 농업.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영향 예술활동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 활동 뿐 아니라 인간 활동이 연결되어 있고 악영향이 무한 루프 되는 듯합니다. 기후위기로 온도가 상승하고 그로 인한 불안정한 기후로 인한 영향이라면 사람들 모두 겪는 것이고 야외공간이 날씨와 연관성이 많으니 폭염으로 전시가 어렵거나 창작 공간이 더워도 에어컨 설치도 쉽지 않으니 덥거나 춥거나 할 수 있으니 영향을 받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여락한 상황이라서 힘들고 예술판 전체의 구조가 자유롭게 활동하기에 너무 어렵지 않나 생각해요.

○ 지원금 아니면 전시 기회조차 없는 현실이기에 그리고 그 지원금은 누가 어떻게 받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다른 걸 업으로 삼아 인테리어 일을 합니다. 쉽게 노가다 일을 하고 저녁 시간에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잘 갑니다.

○ 지원금 받는 이들만 소수 받는 구조라 지역의 예술인들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③ 기후위기와 코로나의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활동에 어려운 점. 코로나 19 전·후로 말씀해주세요
- 코로나 19 전에도 후에도 어려운 사람만 계속 어렵죠. 전시 기회는 쉽지 않고 그로 인해 예술 활동 증명을 하기도 어려웠고,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야 그나마 뭔가 창작자에 대한 지원이 좀 있는데. 그마저도 생활을 위해 일을 하기 위해 중고 트럭 마련한 것이 걸림돌이 되어 창작 지원금을 받지 못했죠. 코로나 19로 전시하기 더 어려워졌어요.
  - 개인적으로 코로나 전보다 후에 사진, 영상작업을 하는 일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또 코로나 시기에 다른 분들보다 수월하게 지냈습니다. 작업을 하다보니 영상으로 담을 수 있는 것과 실제 전시는 전혀 다른 분야이고 그 특, 장 점과 단점들을 잘 이해하고 그에 상응한 전시 기획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공무원들이든 다른 분야 예술인들조차 잘 모르고 그냥 진행만 하는 형국이기도 합니다.
- ④ 코로나 19 시기를 생각하며 비대면(영상, 방송송출)으로라도 진행이 되는 전시기획 등이 도움이 되었는지? 다시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대안이 될만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비대면이 강요받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다시 복기 해보면 평소 사람들과의 만남, 일상 친구들과 밥 한끼 먹는거 대수롭지 않았는데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된 점이 크고 중요한 듯 합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소규모 활동에 대한 기준은 마 되었으니 작품을 나누고 찾아가는 형태 등 조금더 소규모의 설명을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형태를 기획하고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이들이 있어야 할 듯 해요.(비대면만 하지 말고)
  -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불필요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대안은 아닌데 기회마저 없는 것이 또 문제이고 전시를 하기로 하고 못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 정도는 좀 마련해주면 좋겠어요.
  - 당장의 급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예술인 복지제도로, 기본소득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하거나 예술인 고용보험등으로 예술인들의 노동에 대한 댓가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면 좋겠어요. 노무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술관련 협회들이 당장에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단체들의 이익을 위해 멀리보고 그런 제도나 정책에 대한 목소릴 내고 조례라도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본적인 제도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무언가 현상에 맞게 공연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하게 해줄게 라는 방식은 좀.. 언 발에 오줌 놓기 같아요.
  - 다른 소상공인이나 다른 분야의 피해에 대한 가치를 매겨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식인데 예술 분야는 어떻게든 용역을 해야만 주는 방식이기도 하고 뭔가 불공정한 거 같다.

- 모든 것이 비대면, 영상, 방송으로 대체 될 순 없고 분명 공연, 전시와 같은 직접적인 대면과 소통의 방식이 아닌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영상은 영상이라는 예술장르이고, 방송 송출 또한 기술과 장비와 인력이 투여되는 전혀 다른 분야이기에 그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할 듯합니다.
  - 비대면이 엄밀히 말하면 공연, 전시하는 예술인에게 주어지는 돈도 아니고, 영상업자에게 주는 것이지. 못하게 됨 그 피해에 대해 지급해서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하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엉뚱한 데 돈이 가버리니 또 그에 따른 문제가 더 큰 듯합니다. 비대면으로 모든 것인 인테넷상. 가상의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거래 등은 좀 위험하지 않나 싶은데. 자유로운 소통과 폭넓은 활동이 아닌 오히려 모든 게 중앙으로 더 집중이 되는 통제하기 쉬운 부분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 예술분야 기후(날씨)와 관련한 직접적인 영향을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즉자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1차적인 접근이라면 답이 없죠. 날씨가 너무 더우니 공간을 마련해 준다. 라고만 말하면 뭔가..... 그래도 예술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공간. 창작여건을 마련해주면 좋겠는데 1%의 잘나가는 예술인들만 살아 남는 게 아니라 누구나 예술 활동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주면 좋겠어요. 기본 소득도 좋고 그게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면 좋겠는데 꼭 문제가 발생을 하니.. 예술인들 판에서의 자정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너무 없는 듯하고 살기 힘들기에 더 그럴 수 있는데 소수 기득권(?)이 되어 특혜를 보는 이들보다 정말 예술활동을 지속하고픈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을 고민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생활·의·식·주 에너지포함)이 해결되어야 무슨 일든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 ⑤ 기후위기에 대한 개인적 인식 정도와 노력을 예술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직접적인 피해 상황은 코로나 19를 겪으며 예술활동을 하는 이들 특히 공연예술분야가 컸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의 1차, 2차적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도 그에 대한 피해를 개인이 다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렵지 않나 가만히 있다 다 같이 죽을 수 밖에 없죠
  - 개인이 혼자 개별로 먹고 살고,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한 다른 일을 또 하고 개인이 홀로 감당하고 그렇게 노력과 시간을 투여해 만들어진 작품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재미를 주면 좋겠는데 지속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다. 살기 바빠서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라고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코로나 19 상황을 겪으면서도 기후 위기와 연결해서 깊이있게 생각하진 못했죠.
  - 새활용디자인. 창작 활동을 통해 공부하고 느끼는 지점이 있는데 개인적인 노력들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회의감도 들고, 모든 걸 멈추지 않으면..... 어찌 보면 인류가 다 사라져야 문제가 해결 될 거 같습니다.

그룹	문화예술	분야	전시(회화)
나이		성별	여
인터뷰 일자	2022. 01. 26.	지역	당진

- ① 기후위기와 나의 예술활동과의 관련성이 있다면? 어떤 지점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나?
- 전시관에 들러 전시를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못오는 것이지 1차적인 폭우·폭염과 관련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속협 활동으로 지구온난화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기후변화에 대해 문화예술로 대처할 방법은 알리는 정도, 기후에 관한 활동을 하면서 문화예술에서 활동을 하면서 기후위기 환경관련 프로그램 만들기, 환경미술활동으로 풀어 오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 또한 억지로 짜깁기해서 끼워 맞춘 듯한 활동이기도 해요.
- ② 예술활동을 하며 있어 작품활동·전시활동 등에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할 수 있을까? 기후위기와 관련한 영향과 적용되는 방식, 대안 등의 경험이나 생각을 들어보고 싶음
- 결국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에게 기후위기 때문에 여락한 상황의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에서 전시해야 프로필에 영향을 주는 (문화예술활동 증명) 제도가 있어요.
  -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시관에서 전시를 했느냐 안했느냐로 따지는 방법부터 바뀌어야 해요.
  - 이미 전시관을 만들어 놔오니 활용하더라도 전시를 (실내든 야외든)어디에서 하든 인정을 해주어야 해요. 전시관을 빌리는데 돈이 들어가고 사진, 팸플릿을 만들어서 증명해야 인정을 하는데 그게 다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폭을 넓혀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프로필이 지원금을 받는 데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어렵고 그리고 어떤 지원이 언제 시행이 되는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 전시자도 관람객도 쾌적하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지원제도도 필요하고 개인이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서 가뜩이나 여락한 예술인들에게 대관료, 인세로 부담해서라도 유명해지고 인정받으라고 하는 건 하지말라는 이야기지. 어렵다고 생각해요.
  - 협동조합을 통해서 생태적인 공간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체험하고 작업도 하고 소통하는 식물원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당진에는 아직 없어서 의기투합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시도하고 있어요.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지자체든 재단이든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매달리고 싶진 않아요.
  - 코로나 19 때문에 힘든거라고 한다면 가장 큰 타격은 전시회에 사람이 오지 못한 것임.
  - 소소하게 몇 몇만 불러 하면 그냥 자기 만족 정도라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이고, 작업공간도 없기에 예술강사로 나가기 전엔 수입이 없고, 작품 활동을 할 수조차 없는게 현실이에요.
- ③ 코로나 19 시국을 근거로 예술활동 지속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보완사항은?
- 없는 이들이 전시하려면 폭염, 폭우 민감해요. 할 수가 없어요. 비오고 너무 덥고 추우면 그렇

다고 비싼 비용을 대관료를 내서 전시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 전 그래서 카페든 어디든 사람들 야외 전시하는 사람들 보면 연락하라고 카페이지만 전시가능한데 그냥 해도 된다. 내가 기회를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면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가 힘들면 아는 지인들과 함께 공간을 마련해서라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했던거 같아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는 것이지만 기후위기와 관련한 사안이든 예술인들 활동지속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힘들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술인 고용보험도 취지는 좋지만 잘 모르고 너무 어렵고 돈만 뺏기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많아요. 어떤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안내조차 정확하지 않으니깐요.(비대면으로 진행하기도 했으나 어려움이 많음.)

④ 코로나 19 시기를 생각하면 비대면으로라도 진행이 되는 전시기획 등이 도움이 되었는지? 다시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대안이 될만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코로나 19 시기 비대면으로라도 해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영상이나 비대면 전시는 전달이 온전히 되는 방식이 아니며, 의미를 전해주는데 많은 한계가 있어요. 또한 체험과 함께 관람자들과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은 진행 할 수 없음으로 아쉬움도 큼니다.
-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대면으로라도 하는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⑤ 기후위기에 대한 개인적 인식정도와 노력을 예술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기후위기가 주는 위험이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재난으로 다가가지는 않을 듯해요.
- 미술재료들 조차 고민하게 되기도 하고 예술작품 활동으로 기후위기 관련한 주제 등을 담는 노력 등은 가능하겠죠. 환경관련 교육프로그램개발을 문화예술과 접목한 방법 등을 취할 수 있지만 개인적 노력보다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룹	노동	분야	건설
나이	39	성별	남
인터뷰 일자	2022. 02. 11.	지역	아산

① 본인 소개

- 건설현장(노가다)에서 일하고 있음. 건설현장에서 일한지 2년 정도 됐구요. 정해진 곳 없이 불러주는 곳이면 웬만하면 가리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탕정에서 일함.

② 건설업을 하게된 이유?

- 원래 하던 일은 이게 아니었고, 보험 쪽 일을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일이 좀 안됐고 힘들어져서 건설에 아는 분 통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전문자격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작은 일부터 하면 된다고 해서 같이 다니면서 배우고 있어요. 짐 옮기고 나르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주로 철근 나르는 일을 합니다. 예전에 운동을 했어서인지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가 지나니 적응이 금방 됐어요. 사람 만나서 설득하고 이야기 나누는 일이었다면 지금이 훨씬 마음은 편한거 같아요. 다만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③ 기후위기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생각하였나?

- 기후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뭘 얘기하는거지 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 건설 현장에서 하는거다보니 날씨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그 얘기하면 되는갑다 했어요. 비오면 비와서 일 못하고, 눈오면 눈와서 일 못하고 그런 경우가 가장 커요. 그렇게 쉰다고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구요.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 요즘은 이게 날씨가 집중호우라고 하나요. 비가 오면 몇 시간 안에 막 퍼붓고, 눈이 와도 그렇고. 여름에는 정말 말도 못해요.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폭염이면 숨쉬기도 힘든데 안전 장비 다 하고 마스크 끼고 철근도 뜨겁게 달궈져서 일하기 정말 힘들어요. 아마 폭염이여서 35도만 넘어가도 다들 에어컨 없이 살기도 힘들텐데 그럴 때 온도 체크하는거 보면 40도는 그냥 넘는 거 같아요. 철근에 살만 잘못 닿아도 화상을 입죠.

④ 일하면서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느끼실 수밖에 없으실텐데요. 일하면서 겪었던 힘들었던 일,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상황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세요

- 아까 얘기하다 나온 단어가 뭐죠? 온열질환? 그거 심각해요. 여름 되면 한낮에 제일 뜨거울 때 일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 해요들. 왜냐면 비 와서 일 못하는 기간 빼면 공사 시간 못 맞추거든요. 잠깐잠깐 그늘에서 쉬거나 물 마시거나 하라고 하지, 아예 제일 더운 낮시간에 몇 시간 쉬게 하거나 그런 건 잘 없어요. 그리고 노동조합이나 있어야 그런 얘기도

하지 아니면 못하구요. 그들도 결국 공기가 뜨거워서 숨쉬기도 어려우니 쉬는게 쉬는게 아니  
 예요. 그렇다고 휴식공간이 따로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 밥먹으러 갈때나 식당에 에어컨 나오  
 니까 그나마 낫죠. 그것도 점심시간 잠깐이니까 시간 몇분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더운 것땀에  
 땀띠는 기본이고 모자쓰고 옷 다 입어도 화상 입는 사람 많아요. 숨 제대로 안쉬어지니까 쓰  
 러지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잠깐 기절한다고 해야하나, 정신을 잃는거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데요. 높은데서 있다가 그러면 그냥 떨어져 다치거나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실  
 려가구요. 그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저는 일한지 얼마 안되서 그런데 예전에는 이정도로 힘들  
 진 않았대네요. 점점 기온이 올라가서 그런거지 최근 몇년 사이에 폭염이 엄청 심해진거라니  
 까 아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거죠.

⑤ 일하다 '죽을수도 있겠구나'가 아니라 실제 동료가 다치거나 죽는 일을 보면서 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거 같음.

○ 저도 그게 제일 걱정되요. '나는 아닐거야' 이걸 아니잖아요. 최근에 광주에선가 건물 철거하다  
 가 건물 그냥 쓰러지면서 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전에 그 중간부분만 무너져내린 것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들은 시키니까 하는 거거든요?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도 관리자들이나 회사에서 시키니까 하는건데,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폭염이나 폭우, 폭  
 설, 한파 그런거는 당연히 더 불안하고 그렇죠. 추울때는 옷을 껴입든 보온되는 기능성이라던  
 지 뭐든 하면 되는데 더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대책이 없죠. 폭염이면 일을 안  
 하는게 방법이에요. 그게 최선인데 그걸 못하니까 그런거죠.

○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기자회견 그런것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근데 그럼 뭐해요. 결국  
 하라고하면 해야하고 못한다그러면 일 그만두고 실직자 되는건데. 이렇게 되면 매년 여름마다  
 더 덥고 습할텐데 올해는 어떨지 상상도 못해요. 그때까지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  
 는거구요.

⑥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제도, 지원, 요구  
 사항 등)

○ 나라에서 엄격하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인가 폭우에 허리까지 물이 찼는데도 치킨배달하  
 러 가는 사진이 인터넷에 나왔었거든요? 그게 말이 안되지않아요, 그러다 죽을수도 있는데. 우리  
 도 마찬가지예요. 폭염에는 더워서, 숨을 제대로 못쉬니까, 뜨거워서 하늘이 핑 돌아 쓰러지거  
 나 그냥 쓰러지기만 하면 다행이지. 높은데서 떨어지기도 해봐요. 죽으면 다행인데 몸 다쳐  
 서 장애 입거나 일 못하면 그게 더 끔찍한거예요. 점심먹고 나면 진짜 더워지거든요. 1~2시부터  
 3~4시까지. 정말 미쳐요. 움직이는게 신기할 정도로. 그걸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냥 법으로 만들고 지켜라 하지 말고, 진짜 안시키면 어떻게 벌금을 엄청 막대하게 때린대든가,  
 그 시간에 일하는 건설현장 있으면 아예 공사 못하게 막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바껴요. 제

가 한 얘기 다른 사람들도 다 했을거 아니에요. 못하게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계속 죽을 각오로 일할 거예요. 날씨, 기후 때문 아니여도 일하는데가 위험한데 그거에다 더해서 심하잖아요.

- 그리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그런 일이 없겠지만 건설에서 일하는 사람들 없으면 건물 못지어요. 없어선 안될, 의식중 중 기본이 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룹	노동	분야	플랜트
나이	49	성별	남
인터뷰 일자	2022. 02. 08.	지역	당진

① 본인 소개

- 저는 전국플랜트노조충남지부 비계군의 노안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석유화학단지에서 비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계가 뭐냐면 예를 들어, 아파트 공사 보면 아파트가 올라가려면 외벽이 있잖아요, 그런 외벽을 만들고 해체하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되요. 그리고 콘크리트 잘못된 것도 꺼내고 하려면은 거기에 가상의 틀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걸 만드는 일이에요. 노동자들이 다니는 길이나 작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통로나 작업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걸 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작업이 끝나면 해체를 해서 깔끔하게 딱 아파트만 남는거죠.

② 기후변화에 대해 느낀건 언제부터인가?

- 외부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 온도 변화에 엄청 민감하고 그게 많이 힘들죠. 특히 여름 같은 경우. 저희가 진짜 한여름에는 막 땀이 나다가 못해서 '워머'가 젖어있다못해서 숨을 쉬면 막 물에 빠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더위에 민감하죠.
- 그리고 새로 증설을 하거나 신설을 할 때도 있지만 섯다운이라고 공장이 돌아가는 거를 세워 놓고 빨리 끝내야 하는 작업이 있어요. 공장이 돌아가는 걸 끝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공사 준비를 시간 내에 그걸 다 완수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 시간 내에 그걸 끝내려고 급할 때는 철야도 하고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죠. 근데 더운 날은 정말 속도내기가 어려워요. 속도를 엄청 내야하고, 야간작업이 많이 하고. 야간작업을 많이 하면 확실히 위험도 많아지잖아요.

③ 기후위기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생각하였나?

- 현장 노동자로서 기후가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잖아요. 이제 우리 몸으로 체감하는 느낌,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지금 변화되는 것들 그런 걸 말하려고 했어요. 몸으로 느끼는 것 중 가장 큰 게 에어컨이 없으면 실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철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실 수 있는데가 한정되어 있어요. 현장 안에서 위험 요인이 많기 때문에 현장 안에서 실 수가 없고 들어와서 쉬어야 되는데 컨테이너에 들어와도 덥잖아요. 옛날까지도 아니고 한 5~6년 전만 해도 진짜 더울 때 아니면 뭐 굳이 그렇게 막 에어컨이 필요성이 크지 않고 선풍기를 켜도 되는데 지금은 에어컨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후에 일을 못할정도로 안되는 상황이 돼요.
- 지금은 이제 각 현장마다 복지로 에어컨 설치하시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제 우리가 체감하기에 진짜로 에어컨 없애면 안 되겠다. 못 살겠다, 이 정도로. 이쪽 서산, 대산이 바닷가도 바닷

하지만 매립지라고 서늘해갖고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물이 들어올 때 또 시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42도까지 그냥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기후변화와 환경 오염이겠지 그런 게 엄청 많이 느껴져요. 밖에 온도가 요즘 여름에 34도 이상이면 현장 안에 온도계를 설치해 놔는데 44도는 기본이에요. 현장에 철판이 있고 바람 안 통하는 좀 뜨거운 데도 있긴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옛날에 비하면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거죠. 에어컨을 트는 것도 옛날에는 한 달도 채 안 틀었다면 지금은 두 달 이상을 틀어야 될 정도로 뜨거워지고 있죠, 지금. 에어컨 바람도 최강, 온도도 최하. 그리고 사람들이 여름에 엄청 더 예민해지니 노동자들끼리 언쟁이나 뭐 싸움 이런 부분도 많아진다고 해야하나요, 그 시기에. 특히 여름 그러니까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더운데다가 일하는 것도 짜증 나고 힘들잖아요. 상대방을 이해할 그런 상태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냥 에어컨 자리에 있다가 일하고 그러는거예요. 예전에는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그러면 그냥저냥 할 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틀려졌죠. 대화도 단절됐죠. 다들 에어컨 앞에서 핸드폰을 하거나 쉬니까.

- 계절도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평상시에 이제 봄 여름 빼고 가을 겨울 오히려 겨울이 옛날에는 진짜 손 시럽고 많이 추웠는데 겨울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겨울은 기간이 짧아진 것 같고 여름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이 계절로도 느껴져요. 지금은 여름의 폭이 늘어나서 봄하고 가을에 이 애매함이 있잖아요. 일할 때도 그렇고 온도 변화도 그렇고, 플랜트 안에서 일하는 공간하고 이 밖에 공간하고 변화가 또 틀리기도 하구요. 환경적으로 보이는 것도 다르고 특히 이쪽 유아단지 이쪽은 계절상 가을이 접어들어도 현장만 가면 한여름하고 비슷한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계절변화를 느끼기 쉽지 않죠.

④ 일하면서 기후변화 때문에 직접 피해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것 때문에 심각한 위험에 처한 사례가 있나?

- 여름이 되면 온열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병원에 실러가는 일도 많아지고. 저희들은 한 두 시간 일하고 30분 쉬었다가 1시간 반 일하고 점심 먹고 또 2시간 일하고 30분 쉬었다가 퇴근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에어컨 밑에 있다가 일할 때 일하는 시간대에 노출되는 시간에 갑자기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과부하 걸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름마다 취합해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여름에는 골절이 되거나 아니면 점도가 되거나 뭐 이런 사고보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고들이 많아졌어요. 한 5년 전하고 지금하고 거의 한 두 배이상 정도로 늘어난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물을 많이 먹게 제공해주는 거밖에 없어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일을 해야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많이 주고 좀 쉬라고는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도 여름 되면 온도가 33도가 넘어가면 한 30분 더 쉬어요. 그러다보니 걱정되는 게 엄청 더운 공간에 있다가 막 44도 막 이런 데 있다가, 막 18도 그런 에어컨을 급속으로 진짜 아주 시원한 공간에 사실 가잖아요. 이것도 몸에 이상도 생길까봐 우려스럽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더 무리가 갈 수도 있고요.
- 아, 집중호우 때문에 달라진 것도 있어요. 강수량이 많아진 게 아니라 스콜성집중호우가 많아

저서 현장 안에서도 그전에는 이게 여기가 매립지다 보니까 배수가 엄청 잘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끝에는 물이 차고 그럴 정도로 심해져요. 토목 배수 이론 시설은 옛날하고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갑자기 막 오는 스콜성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용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정전도 되고 막 그랬었어요. 점점 그러면 감전 사고나 작업을 못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해서 영향을 미치죠.

- 그리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 환경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미끄럽고 그래서 일을 하는 기간들이 많이 단축이 되죠. 기간이 단축되면 양이 단축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25일 이내에 될 거를 20일밖에 못 됐어요. 우리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급여도 달라지고, 비가 안 오고 날이 좋을 때 연장도 하고 일을 해야되죠. 그러면 근무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죠. 작업량이 더 늘어나거나 속도를 더 내야되거나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일 못하는 날은 임금도 삭감되는 거고 임금삭감이 환경 때문에 결국 영향을 받는거죠. 폭염으로 인해서도 회사에서 안 시켜요, 일을. 왜 그러냐면 너무 더우니까 효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휴가를 그냥 딱 3일 정도로 썼다면은 지금은 뭐 한 일주일씩 그냥 무급으로 쉬라고 하는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여기 기후 환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하는 일들이 결국은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⑤ 앞으로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거라고 보나?

- 재해가 오는거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현장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그러면 하려고 해도 몸의 여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제 생각에 대구 같은 경우는 평균 40도가 넘는다고 그러던데 화학 단지는 이미 그런지 아주 오래됐거든요.
- 폭염은 진짜 답이 없어요. 철판이 많잖아요, 반사 디스크가 뜨겁죠. 온도계 40도 넘는건 기본이고, 사람들은 철 위에서 일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분 하면 땀을 물처럼 내뿜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죠. 숨 막히면 물에 빠져 죽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 집중호우도 현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막 오고 이 물이 다 잠겨 있으면 감전 사고가 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그 당시에는 감전될 수 있다는거를 인지를 못해요. 그냥 비 피하는 것만 생각하지. 더군다나 전기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우리가 조심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안전팀이나 교육을 아무리 받은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몰라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발생을 하니까 점점 더 위험해지는 거죠. 여름에 돌연사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들어갔는데 연락이 안 돼서 가보면 죽은거죠. 스트레스 이런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여름이 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이 누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지병이 없는 사람들도 여름이 끝날 때쯤 되면 다 얼굴도 그렇고 활기도 없고 표정도 안 밝고 좋은 얘기 잘 안 하시죠. 작년에도 네 분인가 돌연사를 했는데 겨울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 여름이예요. 너무 덥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사람 몸이 날씨에 반응을 하는거죠.

- ⑥ 현재 상황에서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 원하는거나 기후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들 스트레스들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데이터나 전수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거요. 그리고 예방 교육도 하고, 노동자 스스로가 알면 좀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이고 모르는 상태면은 그냥 괜히 짜증이 나고 그럴 건데, 내가 너무 덩다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까지 변화가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인지를 하면 내 스스로도 릴렉스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이게 산재가 된다고 되게 심각하게 느껴요. 가장 큰 맥락은 그거예요. 환경이나 기후 때문만이 아니라 그 영향으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지 않고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나도 살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룹	노동	분야	배달
나이	48	성별	남
인터뷰 일자	2022. 02. 09.	지역	천안

① 본인 소개

- 지금 배달대행 노동자고요. 지금 일한 지는 한 2년쯤 됐어요. 본업은 따로 있고 이제 부업으로 거의 밤 8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거의 8시간정도 하고 있어요.
- 무용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니까 이렇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배달일을 시작했죠. 배달하시는 분들 보고 당장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계속 보다가 일하시는 분한테 직접 여쭙보니까 바로바로 수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인터넷 찾아보고 직접 그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서 바로 일을 시작했죠. 학원 가서 무용일 하고 낮에 배달 대행하고 오후쯤 돼서 학원 가서 또 일하고 저녁엔 새벽까지 배달 대행 일하고 그래요.

② 날씨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 배달 대행은 날씨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몸으로 다 받기 때문에 조금만 덥고 조금만 추우면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 느껴요. 오토바이가 달리기 때문에 여름에는 헬멧을 쓰면 안에서 완전히 뜨거워요. 썩 죽는 거예요. 여름에는 이제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달리면서 비를 맞잖아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직접 해보아야지만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사람이 짜증 날 정도로 힘든 정도가 있어요. 진짜 힘들죠. 굉장히 힘들고 날씨적으로 봤을 때 '아 진짜 극한이다.' 느껴요.
- 또 겨울에는 야간에 완전 영하 10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달리면은 체감 기온이 영하 30도, 손가락이 아플정도예요. 지금 한 1월 1월부터 2월 초까지 손가락 빼가지고 핸드폰 터치를 하잖아요. 손이 너무 시려가지고 막 꺾꺾 참으면서 해야 돼요. 발가락도 너무 시렵고 방한을 하는데도 그 날씨에 대한 굉장히 민감하죠.

③ 일하면서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 천안에서 제가 2년 동안 했잖아요. 날씨를 딱 보니까 기후가 이제 점점 변화가 된다고 민감하게 느껴지게 된 게, 작년에 비가 엄청나게 와서 저기 천안 거기 침수가 됐어요. 쌍용동 쪽으로 침수가 돼서 차들이 막 잠기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쌍용동 갔다가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오토바이가 거의 반이 잠겨서 물길을 막 헤쳐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갔다니깐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상기후가 진짜 이래서 이상기후가 되는구나 싶었고, 그래서 탄소 그것도 그렇고 뭐 이런 기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④ 동료들 포함 기후변화로 겪는 어려움은?

- 배달 대행 일을 하시면서의 사건사고는 비 올 때, 눈이 많이 오고 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죠. 많이 넘어져요. 비 오면 노면이 미끄러워요. 브레이크를 잡으면 더 밀려서 넘어가 조금만 그 잘못 잡으면 확 넘어지는 자칫 혼자서 넘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오토바이 또 수리해야 되고 그런 게 많고. 야간에 일하는 친구가 지금 다리 수술했는데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앞에서 갑자기 강아지가 나와서 탁 틀었는데 넘어지면서 바위 쪽에 끼어서 그게 다리가 딱 틀어진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 그리고 열이 엄청나요. 오토바이는 신경 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고 조금만 머리 어지러우면 그대로 바로 몸에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눈 팔지 않고 해야 돼요. 그냥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진짜 집중해 가지고 그러니까 잘못하다간 죽는 거예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건강 해친다는 건 느끼죠. 밖에 있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달리는 사람이 그냥 일하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미세먼지 있어도 무감각해요. 여유가 있으면 미세먼지 상관하는데 여유가 다 없으니까. 이런 마스크가 아니고 그냥 천으로 되는 이렇게 막는 게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미세먼지 막아주는 건 아니고 바람막이죠.
  - 야간은 겨울이 최악입니다. 추위 때문에, 엄청나게 추워서, 동상까지는 아니어도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나가는 듯한 막 그런 추워요. 손가락 끝이 아파요 그만큼 추워서 영하 5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영하 10도 딱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막 발가락에는 핫팩 넣고 양말 두 개 신고 해야지 그나마 좀 되지 아니면 큰일나요.
- ⑤ 배달 업종은 기후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을 건데 뭐가 우려스러운가?
- 이 지금 상태는 지금 호황이고 굉장히 잘되고 있는거고 코로나재난으로 인해 심하면 심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문제가 시스템이 잘못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죽는다고 진짜 그런 게 굉장히 문제라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계속 가면은 그것을 좀 해결해야 할 거 같아요. 시스템만 좀 바꿔놓으면 배달 대행 기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자존감도 높이면서 일을 할 텐데...
  - 코로나든 폭염이든 어쨌든 날 더워 죽겠는데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비가 많이 와도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폭설이든 뭐든 사실 배달 노동자들은 더 바쁘고. 위험할 때 더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씨 기후변화가 최악일 때 배달 대행일은 위험할 수밖에 없죠. 배달 노동자들은 자기 혼자에 대해서 자기가 돈을 다 자기 부담으로 다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좀 나오면 제일 좋죠. 말도 안 되는 보험료 책정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처럼 낮춰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 그 다음에 이제 여름하고 겨울에 배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복지 혜택을 할 수 있는 걸 해주면 배달 사람들이 느끼게끔 진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사고가 나는 이유가 몇 시까지면 빨리 배달을 해달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느긋하게 만들 수 있어요. 체계를 만든 사람이 잘못된거지 처음부터 만들 때. 예를 들면 원래는 10분 안에 가야돼, 근데 눈 오고 비 오니까 한 20분으로 늘어나 이런 게 있어요. 여름에 낮에 진짜 폭염일 때는 한두 시간 쿨을 막아버리는 것도 좋을거 같아요. 근데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배달 대행 기사들 건강을 위해 한 시간 정도라도 막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룹	노동	분야	제철
나이	43	성별	남
인터뷰 일자	2022. 02. 10.	지역	당진

① 본인 소개

- 저는 현대제철에서 11년째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스카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핑이 뭐냐면은 슬라브가 나오면은 슬라브 표면에 흙이 있는데 그 흙을 토치 갖다가 제거를 하는 일이에요. 토치가 불이 심하거든요. 열이 많이 나요.

② 기후변화와 노동이랑 연결해서 인터뷰한다고 했을 때 무슨 얘기를 나눌것이라 생각했나?

- 이 기후변화가 지금은 더위가 이게 봄, 가을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냥 겨울, 여름. 저희가 느끼기에 전에는 그래도 한 10월달부터 거의 선선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11월 말일까지 더워요. 작업이 주변에 슬라브도 있지만은 이게 몸에 와 닿는 게 그리고 비 오거나 이럴 경우에 습하잖아요. 습하면 숨쉬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방진 마스크를 끼거든요, 마스크를 끼고 작업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힘들어졌고. 이게 기후변화가 있고 나서부터는 7월부터 거의 한 3~4년 전만 해도 7월부터 9월 말일까지는 작업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6월부터 11월 말일까지가 더워요. 그만큼 더위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한 세달 정도였다면 지금은 거의 다섯 달 5~6개월 가는 거 같아요.
- 그리고 저희가 방연복을 입어요. 방연복 두겹기가 (손으로 표현하며) 이래요. 열에 일하니까 방연복을 입고 거기에 각반, 앞치마, 완전 장비를 다 한단 말이에요. 다 하니까 그 열기가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10분 지나면 사람이 쓰러지는 경우도 많고 1년에 한두 번씩 무조건 쓰러져요, 사람이.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병원 실려 간 적도 있고, 화상 입은 사람도 많고.
- 저희가 여름에 평균 저희 작업장 온도가 45도에서 50도가 나오거든요. 슬라브의 온도는 거의 100도가 넘어가요. 거기 위에 저희가 올라가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청은 저희한테 생산량만 따지지, 환경이랑 안전 문제는 절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작업자들이 법에 대해서 알고 wgp는 것도 배우고 해서 지금은 이제 조금 수월해진거지. 전에는 여름에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풀이었어요. 8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거의 7시간을 일을 했어요. 바람도 안 빠지는 그 환경에서 그대로.
- 비가 오면은 습해서, 여름에 비가 오잖아요. 장마가 오잖아요. 그 한 5분도 못 쓰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땀, 바지까지 다 젖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호흡 곤란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씩은 무조건 쓰러져요. 쓰러지고 병원 실려가고 그러니까. 더운 공기라도 이걸 좀 밖으로 빼줬으면 좋겠는데 밖으로 빼기에는 회사에서 하는 말이 돈 얘기죠. 여기가 최상의 요지다라고 하는데 저희 작업장이 바람이 안 통하는 중간에 딱 있어요.

③ 계절별로, 분기별로 따지면 온도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심하죠. 제가 '대프리카'라고 하는 더운 대구에서 내려온건데 그때가 2013년인데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굉장히 시원하다고 느꼈어요. 여름에 선풍기 한 대면 그냥 지냈던 말이에요. 근데 한 두 해가 자꾸 흘러갈수록 제가 2015년도 16년도부터 에어컨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쪽 세월 흘러가면서 작년이죠. 작년 21년도에 최고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때 최고였고 그다음에 20년도 때도 마찬가지로였어요. 너무 뜨거웠어요.
- 우리가 심지어 20년도 때 6월 9일날 고열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했어요. 한 분이 외주 업체 용역노동자가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는데 봤더니, 발생한 작업장 사업장이 지금 이 대의원 동지가 일하는 옆에 위 크레인인거예요. 뜨거운 열이 밑에서 위로 다 올라가잖아요. 밑에도 뜨겁지만 위에는 더 뜨겁단 말이에요. 거기서 작업 물량 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50개 하면 50개 땡, 60개 하면 60개 땡, 이렇게 무조건 하루에 정해진 개수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죽어라 일하다 진짜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병원으로 딱 가기 전에 앰블런스에서 온도를 딱 짚렸어요. 그게 41.2도였어요, 체온이. 실제로 익어서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고온 고열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됐던 거예요.
- 현장에서 일할 때 방진복 입고 방진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는데 하고 나서 안에 뜨겁잖아요. 나오면 어떻겠어요. 30도라도 안에 60도인데 시원하잖아요. 시원하다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한 2~3년 전부터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면 더 뜨겁고 안에 들어가면 더더 뜨겁고. 이게 햇볕 자체도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탄소중립화 이런 것도 막 뜨고 좀 그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제철소가 가장 주범이에요. 탄소 나오는 에너지 자체에 대해서. 이게 노동자들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온도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충남권이 위쪽이니까 좀 시원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옛말이 되는거죠.
- 여름이 6, 7, 8, 9, 10, 11월까지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찬바람 훅 불더니만 겨울로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기후가 예전에는 아까 대의원 동지가 얘기했다시피 9월쯤 되면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선선한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 분다니까요.
- 또 겨울도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여기가 영하 15도, 18도 이렇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벨트컨베이어 돌다가 막 얼어붙고 이랬었어요. 예전에는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시동 안 걸리는 거는 예삿일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꼭 퇴근하고 나가는 렉카가 무조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해가 갈수록 점점 줄더니 이제는 영하로 떨어져도 10도 이것밖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후가 많이 변하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껴요, 몸소. 그리고 출퇴근할 때 보면 눈이 많이 쌓일 때는 엄청 쌓여있거든요. 근데 퇴근하면 없어요. 퇴근하기 전까지 막 빙판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눈 내리나보다 하면 낮에 다 녹아 있어요. 최근 3~4년 동안은 거의 눈이 온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 2016년도인가 그때 출근할 때마다 이제 대란이었거든요. 15cm씩 막 쌓이고 이랬으니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스노체인이라는 걸 사서 갈아봤어요. 근데 그거 딱 첫 해에 한 번 써보고 그다음부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이후 눈이 안왔음)

④ 온열 때문에 사망사고까지 일어났었는데 이와 같은 사고가 또 있었는지?

- 비일비재했죠. 작년에 저희가 대투쟁을 할 때도 그때 당시에 이제 심정지까지 왔었어요. 외주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심정지가 왔었고 그 사람이 다행히 심폐소생을 했는데 최근에 근로감독 관 통해서 노동자 건강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1년이 지나도록 아직 의식이 없어서 서울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대요.
- 저희는 1년 365일 불 가지고 일을 하니 이게 더워요. 근데 그나마 좀 겨울이 길어지면 이게 좀 선선한 감도 있고 작업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게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거의 1년에 6~7개월로 지금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집중적으로 건강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죠.
- 그래서 사실상 지금 대응이라고 해보야 그냥 쓰러지라고 합니다. 노안부에서는 쓰러지고 앰블 타고 병원 가서 링거를 맞고 냉찜질하고 쉬다가 다시 복귀하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매년, 매월, 매주, 매일이 온열 질환자가 발생이 된다. 특히 6, 7, 8, 9, 10월 집중해서. 그리고 사람이 쓰러지면 저희 노동부에 신고도 하고 '온열 질환자 발생해서 또 쓰러졌습니다. 온열 질환자 발생했는데 심정지 왔습니다.' 계속 이슈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어떻게든 현장이 개선이 됐든 뭐가 됐든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 예를 들어 스카핑이 연속 제조 같은 공정도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통풍이 잘 되고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되는데 그렇게 채우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폐쇄적이고 밀폐적으로 그렇게 대충 짓는 거지. 그렇게 지어 놓고 다 배치하고 나면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조로 일을 하게 되면은 온열 질환이라든지 고온 고열에 노출돼서 건강상의 문제 그러다 보면 오히려 생산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개선에 관해서서 작업 조건 개선과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든 뭘 하든 그것보다 비용 들어가는 게 싫다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여야 사실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온도계가 녹아요. 그래서 저희는 온도계가 계속 꼭대기에서요. 더 이상 올라갈 때가 없어요.

⑤ 동료들과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에 자유로운 대화가 이루어지는가?

- 저는 이제 덥고 막 짜증 나면 말도 하기 싫고 불쾌지수 올라가서.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작업할 때 귀마개를 다 끼고 하거든요. 그리고 헬멧 안전모를 쓰고 하는데 이게 겨울에는 좀 낡아요. 그런데 여름 되면 이제 불쾌지수가 높아지니까 이게 땀도 계속 나니까 사람들한테 이삿대질하고 말도 '똑바로 안해?' 언성이 높아지고 신경질적이고 좀 욱도 섞어가면서 하고. 왜냐하면 '안해야지' 하는데 그게 다 안전이 걸려 있어요. 우리 서로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사람들이 더 예민해지죠.

- 제가 몸무게가 73kg거든요. 여름에 한참 일할 때는 퇴근하잖아요.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잖아요. 68kg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그냥 2 3kg는 그냥 빠져요. 땀이 쪽 흐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몸무게가 갑자기 줄면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만큼 몸이 안 좋다는 거죠.
  
- ⑥ 이 환경 상태로 계속 가면 제철 노동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 거 같은지?
  -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환경단체에 여기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환경부에 신고를 하고 조사해라라고 했는데 이 넓은 공장을 조사하는데 3일 걸렸대요. 3일 뭘 조사했냐 그러니까 그거는 밝혀줄 수 없다, 조사 덜 끝났으니까. 그리고 도대체 어디 어디 했냐 아니면 우리가 에스코트를 하겠다, 노사 같이 해서 사측만 믿고 하면 좀 그렇다. 어디가 분진이 많이 나오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이 코쿠스 게스 문제 아시죠? 벤젠이 나오는 그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지금 백혈병 걸린 환자도 있어요. 급성 리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산재까지 됐는데. 산재 받으면 뭐 합니까 그 사람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약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더 나아가서는 당진 시민 또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근데 했대요. 했는데 4곳이 적발됐대요. 그리고 항만이라고 석회석을 파는데 석회분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완전 온 바다가 덮을 정도로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저희가 신고를 하니깐 '예, 출동할게요.' 하고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기계가 갑자기 멈춰요. 멈추고 들어와서 다시 전화 왔대요 왔는데 '작업 안 하는데요.' 그리고 또 가면 한 20분 뒤에 또 돌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현대제철을.
  - 여기 지나가고 굴뚝이 그제. 이 주변에 있는 저희 회사 직원들도 살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먼지인데 자세히 보면 반짝반짝 빛난대요 그제 쇠 가루예요. 쇠 가루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주변을 다. 문 안 여는지 한참됐고 문을 닫아놔도 이 미립적인 세라이드랑 먼지가 다 들어와서 이게 참. 차만 봐도 그래요. 제가 대구에 한 일주일 정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차가 깨끗해. 근데 여기 하루 이틀만 세워놓으면 새까매져요. 그러니까 먼지도 먼지고 엄청 심하고 그리고 막 부식도 돼 있고.
  - 굴뚝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굴뚝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아무래도 더 먼 거리 지역까지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변에 태안 화력 발전도 있지만 당진의 화력 발전이 있고 그런 굴뚝들이 이제 이 주변에 에어리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싹 다 이제 대기 중에 이제 그렇게 포함돼 있는거고. 출근할 때 보면 지대 조금 높은 데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차 타고 오다가 이래 보면 이 공장 주변 쪽에 보면 뿌예요. 안개 낀 것처럼 누래요. 이렇게 제철소 이 주변이 이미 딱 그렇게 형성돼 있어. 딱 막이 누런 막이 제철소 주변을 싸고 있어요.
  -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꿈꿈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인이 놀러 왔을 때도 이상한 냄새 난다고 무슨 방구 냄새 같은 게 나지 이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여기 가스 냄새가 이런 게 다 젖어 있는 거예요.

⑦ 기타 이야기 할 사항?

- 지금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 특히 발전소 화력발전소하고 제철소로 유명하잖아요. 이런 기후변화라든지 기후 영향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주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런 제조업들 그런 데서는 환경부과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여기에 돌풍이 하나 와가지고 제철소 완전 한번 지붕이 다 까말라가고 차가 뒤집어지고 이런 뉴스에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비도 스콜성 기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섭게 오는 거예요. 비가 한번 때리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제철소 에어리어가 여의도 면적의 이제 3배입니다. 3배인데 이 항만 쪽에는 비가 퍼부어요. 근데 조금 건너가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a조 있죠. 여기는 또 멀쩡해. 그러니까 비 자체도 굉장히 국지성으로 퍼붓는 거예요. 그쪽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일어나냐, 제철소는 뜨겁고 위는 차갑고 이렇게 해서 생겼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기후변화거든요, 사실. 이게 뭔가가 맞지 않는 기온 때문에 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 사람에게 영향을 다 주고 있어요.